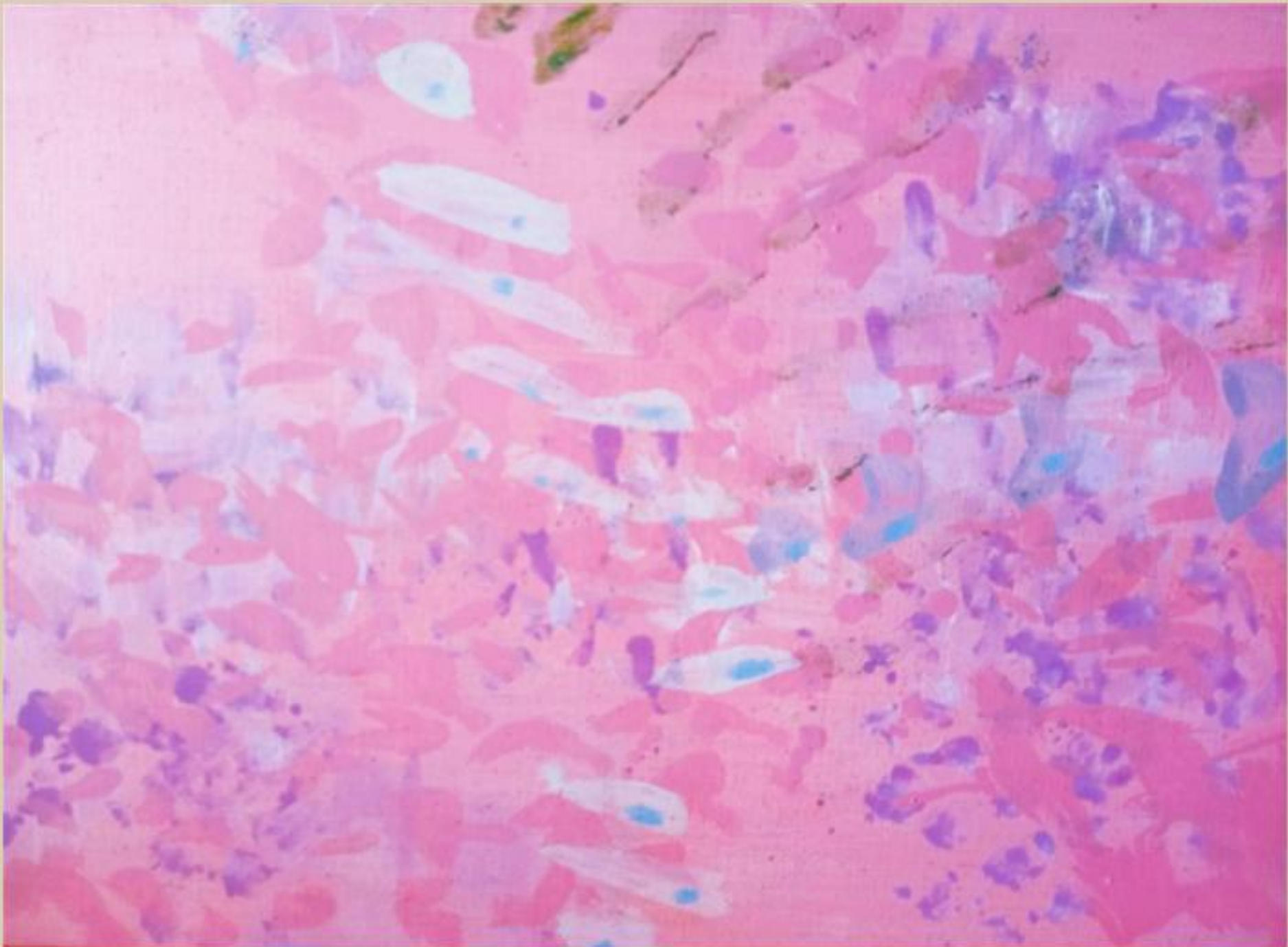


2021 05 Vol. 371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봄 나무



산 높은 곳의 나무는
한 곳에 서서 하늘을 바라고
사계절 하늘 빛을 받아 모은다.

비와 폭풍, 겨울 눈보라 지나가고
그리운 마음 빈 곳은 햇살이 채워진다
아문 상처 가지마다
바람이 연두색 덧칠을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7)
땅을 향하는 몸짓,
땅을 바라는 발걸음이 늘 부끄럽다.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봄 나무
- 03 차례
- 04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52)
- 08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3)
- 12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26)
- 16 어두운 밤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1)
- 20 영혼의 성 연구 / 서한규(시몬) 옮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5)
- 25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6길
- 26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김석영(요셉) 수사
나 안에서 널 찾아라
- 28 선교 / 서창규(알로이시오) 신부
펠릭스 신부님
- 30 응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성 요셉
- 31 회원의 글 / 이정미(헬레나)
보호자이신 성모님!
- 32 묵상 / 윤원조(리드비나)
생각한다. 신비로운 빈틈
- 34 회원의 글 / 반숙자(벨라뎃다)
빈집의 노래
- 36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깊고 더 깊은 곳으로
- 38 회원의 글 / 박계용(도미니카)
아버지는 주무시고
- 40 회원의 글 / 임승빈(요한)
즐기도 즐을시고~
- 41 독자후기 / 광경연(미카엘라)
'하느님의 시간' 을 읽고
- 42 공동체 이야기 /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온 세상에 사랑을
- 46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26)
2021년 7월 영적 나눔
- 48 가르멜 인간극장 / 박지현(요셉피나)
엄마의 뜰
- 50 비둘기
- 52 그림단상

표지그림

성모성월(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2)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제5부: 스페인 맨발 가르멜의 해체와 부활

제1장: 스페인과 포르투갈 가르멜의 해체

1. 혹독한 시련의 시기

한 국가의 사회, 정치적인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한 원인들로부터 야기된 결과들이다. 카를로스 3세와 카를로스 4세가 통치하던 18세기 초부터 19세기의 스페인은 혼란기였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다. 많은 수도원과 수녀원이 불에 타서 사라지거나 몰수되었으며 수도자들은 살해되었다. 그리고 교회와 수도회들에 대한 모함이 종종 이루어졌다. 교회를 향한 이런 거친 선동과 음해는 근본적으로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반(反)가톨릭적이고 합리주의적인 흐름에서 온 것이다. 이 시기 스페인의 국왕들에게 반(反)교회적인 영향을 미친 이들은 소위 ‘백과사전파’¹⁾라 불리는 프랑스

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의 반교회적 사상의 원천이자 수단은 18-19세기에 생겨난 비밀 결사체들로서, 이들은 사회 전반에 종교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그들은 잘못된 의견들을 활용한 가운데 교회에 대항한 일종의 연맹을 구성했다. 이런 비밀 결사체들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프리메이슨’²⁾이었다.

프리메이슨은 스페인에서 은밀하게 형성되어 페르난도 4세 통치 시절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카를로스 3세와 카를로스 4세 통치 시절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은밀히 자신들의 이상을 전파했으며 특히 무신론을 퍼뜨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신앙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신적인 요소에 불과했으며, 이성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계몽주의적인 논리에 따라 다양한 방

족했지만, 계몽사상의 발전, 특히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준비라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1) 백과사전파는 ‘백과전서’(Cyclopaedia)를 지은 18세기 프랑스의 일련의 지식인 그룹을 말한다. 영어의 백과전서를 번역하고 개정(改訂)·증보하는 일을 맡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는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인을 위해 전통적 제도와 편견(偏見)에 대한 투쟁의 무기로 새로운 백과전서를 계획했다. 그는 많은 집필진(유명인으로서는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케네 등이 있다.)의 협력을 얻어 1751년 제1권을 출판하였으나, 이 작품을 통해 이성을 주장하고 신학과 가톨릭교회와 절대 왕정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1759년에 발행 금지를 당했다. 그러나 디드로는 이를 잘 이겨내 1772년까지 본문(本文) 19권, 도표(圖表) 11권에 이르는 대사전을 완성하였다. 이 백과전서는 여러 사상가들이 집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상적 통일은 부

2) ‘로지’(작은 집)라는 집회를 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중세의 석공(石工:메이슨) 길드에서 비롯되었다. 1717년 런던에서 몇 개의 로지가 대(大)로지를 형성한 것이 그 시초이다. 18세기 중엽 전 영국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유럽 각국과 미국까지 퍼졌는데, 이때는 이미 석공들만이 아닌 지식인·중산층 개신교 신자들을 많이 포함한 조직이었다.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세계시민주의적 의식과 함께 자유주의·개인주의·합리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종교적으로는 관용을 중시하며, 그리스도교 조직은 아니지만 도덕성과 박애정신 및 준법을 강조하는 등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때문에 기존의 종교조직들, 특히 가톨릭교회와 가톨릭을 옹호하는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비밀 결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반(反)교회적이다. 프랑스 혁명이나 19세기 여러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기도 했다. 조지 워싱턴, 모차르트, 몽테스키외 등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출처: 두산백과사전).

식으로 교회에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 교회는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맨발 가르멜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 초기인 1810년부터 1814년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1820년부터 1823년에는 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거나 상당히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박해는 수도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했던 페르난도 4세가 세상을 떠난 1833년부터 스페인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 교회는 큰 위기를 겪어야 했다.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주로 수도자들이었다. 이는 스페인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스페인은 이러한 흥역을 19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알아야 했다.

1.1. 1835년의 봉쇄 해제³⁾로 인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19세기 초 당시 스페인 사회와 사람들은 신앙과 유리된 세속적인 삶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 역시 자신이 생겨나고 성장한 못자리인 가톨릭 신앙을 배제하거나 그 신앙에 대항한 자신을 상상하지도 못했었다. 당시 수도회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19세기 초에 일어난 나폴레옹 점령군에 대항해서 일어난 독립 전쟁(1808~1814)은 단순한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 그 이상으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유입되고 퍼져나간 세

속적인 사상에 대항한 종교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이 전쟁에는 스페인을 침략한 나폴레옹 군대에 맞서 많은 수도자들이 이 전쟁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 스페인 곳곳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또한 수도원, 수녀원 건물들은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되거나 세속적인 용도로 전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각되어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는 반교회적인 정책, 특히 수도 생활을 없애려는 반수도회 정책으로 인한 수도회들의 폐쇄, 건물 매각으로 인해 일어난 다양한 현상이었다.

이런 반교회적, 반수도회적 정책을 담고 있는 교령은 스페인을 점령한 나폴레옹에 의해 1808년 12월 4일 처음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원은 수련자들을 받지 못했으며 이와 동시에 수도원의 숫자 역시 삼분의 일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다. 더욱이, 진정한 수도 성소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성소자들로 인해 수도 생활의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갔다(1809년 4월 27일자 국왕의 칙령). 그러나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원들에 대한 봉쇄 해제를 명령하는 칙령은 1809년 8월 18일 요셉 보나파르트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스페인을 침공한 프랑스 군대가 담당한 수도자들에게는 형벌과도 같았다. 이러한 폐쇄 조치는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자들에게 해당되었으며, 당시 그들에게는 수도복을 벗고 수도원을 떠나기까지 2주간의 유예기간만 주어졌다. 이들은 교구 사제가 입는 수단을 강제로 입어야 했다. 더욱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출신지로 되돌아가야 했으며, 거기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해당 교구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당시 일어난 수도회들의 폐쇄 조치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도회들에 대한 폐쇄는 당시 활동했던 자유주의자들(대부분은 프리메이슨 회원들)의 열망과 계획에 바탕을 두고

3) 이는 19세기 스페인에서 여러 수도회들의 폐쇄를 야기했다. 이러한 폐쇄 조치는 다양한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1단계: 1834년 4월 22일, 각 수도회들이 더 이상 수련자들을 받지 못하도록 금하다. 2단계: 1835년 7월 25일, 각 수도회마다 12명을 제외한 모든 수도원들에 대한 폐쇄를 명하다. 3단계: 1836년 3월 8일, 모든 수도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폐쇄와 매각을 명하다.

있었다. 또한, 이는 부르봉의 마리아 크리스티나의 섭정 아래 있던 스페인의 정치적인 상황에 잘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1814년 프랑스 군대의 철수와 프랑스에 망명해 있던 페르난도 7세 국왕의 스페인으로의 귀환과 더불어 그간 황폐해진 수도회들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도원들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하나는, 그간 수도원들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파괴된 상태였으며, 또 하나는 사방에 흩어진 회원들을 다시 수도 공동체에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각 수도회 장상들이 겪었던 상당한 어려움이 그것이다. 특히, 혁명 사상에 물든 회원들과 수도 성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회원들을 공동체에 들임으로써 공동체에 많은 물의가 빚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전제주의 통치 시기에(1814-1820), 그간 흩어진 많은 수도자들이 의무적으로 자신의 본래 수도원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이로 인해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 조치를 불만스러워했고 이는 수도 공동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혁명의 이념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교회를 반대하는 비밀 결사단체들 역시 암암리에 계속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이들은 1820~1823의 소위 자유스러운 3년 동안 카디즈 헌법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헌법과 더불어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회들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182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법률을 통해 예수회를 폐쇄했다. 또한, 교황청립 수도회들을 포함해서 모든 수도회를 지역 주교들의 관할 아래 두었다(8항). 이와 함께, 모든 수도회들은 더 이상 수련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10항), 24명 이하의 수도자들이 머무는 모든 수도원의 폐쇄를 명했다. 이렇게 폐쇄된 많은 수도원의 건물은 정부의 소유로 넘어갔으며, 정부는 이런 건물들을 공공 단체를 위

한 건물로 전용했다. 또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정부에 의해 몰수됐으며, 전례를 위한 건물들은 주교들에게 넘겨짐으로써, 이를 팔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분배하도록 조치했다. 이 칙령은 1820년 10월 25일 스페인 국왕에 의해 승인되어 효력을 발휘했다.

1.2. 1834년부터 1840년까지의 봉쇄 해제

1834년에 스페인 전역에는 콜레라 전염병이 퍼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해 7월 마드리드에서는 500명에서 800명을 동시에 매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염병의 원인을 둘러싸고 열토당토않은 소문이 돌았다. 이는 특히 반(反)성직자적인 노선을 표방한 신문이, 수도자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하는 소문을 폭로함으로써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수도원과 수도자들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일반 대중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1834년 7월 17일 오후 5시, 살인 청부업자들에 의해 소집된 일단의 군중은 마드리드의 예수회 왕립 학교를 중심으로 모여 그 건물 안으로 불법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젊은 수사들뿐만 아니라 연로한 수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여기에는 아토차 지역의 도미니코 회원들도 와 있던 터였다. 밤 9시가 되자, 성난 군중은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가르멜 수도원에도 쳐들어갔다. 이들은 수도원과 성당에 있던 프란치스코 회원을 50명이나 살해했다. 하지만, 수도자들은 그 지역에 주둔해 있던 군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가르멜 회원들은 구사일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밖에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마침내,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으며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회들을 폐쇄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계획되고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권력을 잡은 세속적인 정치가들과 수도회들의 폐쇄 과정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834년에 시행된 국가 기본법을 통해 자유주의 혁명을 추구했던 후안 알바레스 멘디사발이 정권을 잡았으며, 이와 함께 반교회적, 반수도회적 노선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마침내 이런 움직임은 1837년 헌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체제가 출범함과 동시에 진보주의자들의 승리와 함께 절정에 달했다.

이로써 수도회들에 대한 폐쇄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모든 수도원들에 대한 폐쇄는 1834년 3월 26일 자로 공포된 법령과 더불어 시행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카를로스 데 몰리나 백작과 그 후손들의 왕위계승권을 주장한 카를로스파를 지지하는 가운데 정통주의를 표방했고, 이는 자유주의 정부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1834년에 공포된 법령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도원들의 폐쇄를 강력하게 시행했다. 이 법령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네 개 조항은 카를로스파를 지지하는 모든 수도원들의 폐쇄를 포함한 일련의 강경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일렌 공작은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회 장상들로 하여금, 더 이상 수련자들을 수도회에 받지 말도록 강제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교회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도 단행했다. 이를 위해 1834년 7월 5일 자로 제반 교구의 주교들과 모든 수도회의 고위 장상들에게 정부의 시행 계획을 담은 회람장을 배포하기도 했다. 바일렌 공작은 이 문서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스페인 교회 내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본당과 수도원의 현황, 지리적인 자료,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1835년 7월 7일 마르티네스 데 라 로사

정부가 무너지고 토레노 백작이 권력을 잡았으며, 그는 그 해에 스페인으로부터 예수회를 추방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인 7월 25일, 12명 이하의 모든 수도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해 9월 15일, 마르티네스가 실각하고 후안 알바레스 멘디사발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러한 반교회적, 반수도회적 조치는 계속되었다. 그는 10월 11일자 법령을 통해 이전에 시행된 수도원들에 대한 폐쇄를 더욱 강화했으며, 마침내 스페인 내의 모든 수도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쇄를 단행했다. 그리고 1836년 3월 8일, 모든 수도원들을 매각해서 국고에 환수했다. 이어서 1837년 2월 16일 자 법령을 통해, 정부는 스페인 본토를 비롯해 그에 속한 모든 섬과 아프리카에 있는 영토까지 포함해 스페인의 모든 영토에서 남녀 모든 수도회에 속한 모든 수도원, 수녀원을 없애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된다. 한편, 카를로스파가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와 바스코 지역에서는 이 법령이 1837년 8월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반교회적, 특히 반수도회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정부의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이었으며 여기에 더해 경제적인 이득도 추구했다. 즉, 당시 세속 정부는 교회의 권위와 재산을 빼앗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을 끌어들이 새로운 사회 계층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당시 정부를 주도했던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이런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단지 교회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소수의 부르주아 독재 집단만 만들어졌을 뿐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3)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번역(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역/ 인천 수도원

1. 알랑송

“레오니는 느리게 깨우친다”

한편, 마르탱 부인은 레오니가 자격을 갖춘 알랑송 출신의 어떤 젊은 부인의 가르침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레오니는 셈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산수 문제를 자기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풀이해버렸다! 젤리는 남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그 애는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단다. 하지만 느리게나마 조금씩 깨우치고 있어. 분명히 새해에는 방문회 수녀원에 가게 되겠지. 난 그 애가 입을 옷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애가 자기 이모를 힘들게 할까봐 그게 걱정스럽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이겠지. 만약에 그 애가 성공하지 못한다해도, 적어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본 셈이 되지 않겠니.

르망에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언니 수녀님은 상당히 잘 지내고 있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는 지난겨울보다도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단다. 난 하느님께서 언니가 나의 레오니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 일을 언니에게 따로 할애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오로지 언니만이 레오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누가 그 가없

은 아이에게,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그 애 대답은 늘 한결같지. “난 방문회 수녀가 돼서 이모와 함께 지낼 거야”라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하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감히 바라지도 못할 만큼 너무 멋진 일이겠지.

그리고 나서는, 습진이 재발해서 레오니의 몸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종기들로 뒤덮였다.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녀의 모친은 레오니가 르망에 갈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웠다.

젤리는, 게랭 부부가 조카딸들에게 보내 주려고 계획한 새해 선물에 대해 글을 적으면서 올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도, 값비싼 책들은 보내지 마렴. 왜냐하면 레오니는 한 달 안에 교리서를 달아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교리서에서 단 한 가지도 배우지 못하고 말이지!”

새로운 희망

마침내 1874년 1월 초에 레오니는 자기 언니들과 기숙학교에 갔다. 마르탱 부인은 게랭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레오니는 학교 가는 것을 정말 기뻐했단다. 만약 그 애가 행복해하고 잘 지낸다면, 그 기숙학교에 몇 년 동안 머물게 할 생각이야.”

하지만 그로부터 세 달 후에, 레오니의 가없는 어머니는 자기 딸의 행실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만약 그 애가 나에게 되돌아온다면, 난 절망에 빠지고 말거야. 유일한 내 희망은 그 애를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지. 난 성인이 되려고 했던 너에게 간청하마. 그 애가 앞으로 그 수녀원에 머물게끔 해 달라고 기도해주렴” 이라고 편지를 썼다.

레오니의 이모는 게렝 부부에게 자신이 레오니를 더 유순하게 만들려고 애썼던 여러 교육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레오니 소식을 풀었었지. 너희도 알다시피, 그 가엾은 아이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단다. 여기에 머문 3개월 동안, 난 그 애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쳤단다.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난 야단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지. 난 내가 그 애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단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애에게 하느님의 섭리가 있기를 바랐던 거지.

그래서 난 그 애를 야단치는 것을 멈추고 아주 온화하게 대하기 시작했단다. 내가 보기에 그 애는 착해지고 싶어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난 그 애를 신뢰하고 있다고 그 애한테 말해주었지. 그렇게 한 것이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했단다. 그것도 잠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졌지. 이제 난 그 애가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있지. 그 애는 나한테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모든 행동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단다. 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 바랐다고 그 애한테 말해주었고, 그 애 정말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었단다. 난 하느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주시고, 그 애가 정말 선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그 일을 다 끝마치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말이지. 게다가 내가 알기로 미래에

한 차례 이상 온화한 것과 엄한 것을 조화시켜야만 할 것 같구나.

1872년 2월 11일에, 마리 도시테 수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렝 부부에게 써 보낸 적이 있었다. “잠시 레오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난 그 애에게서 그 애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단다. 하느님 앞에서, 가장 반항하는 본성이 제압된 것이지. 그분께서는 당신 은총으로 늑대들을 양들로 만드시며, 양들을 사자들만큼이나 두려움 없게 하시지.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물론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단다.”

레오니가 집으로 돌려보내지다.

그리고 나서는 재앙이 들이닥쳤다. 레오니가 세 번째로 학교에서 집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1874년 6월에, 젤리는 자기 올케에게 슬픔에 싸여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넌 나의 가엾은 레오니가 학교를 떠났다는 소식을 르망에 있는 그 애 이모에게 듣게 되겠지. 네가 상상할 수 있듯이, 그 일 때문에 난 끔찍하게 속을 태웠단다. 그보다 더 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그 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이야. 난 내 언니가 유일하게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수녀님들이 그 애를 데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그 수녀님들의 모든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단다. 수녀님들은 그 애를 다른 아이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안 되었을 거야. 그 애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자제하지 못하고 끔찍하게 제 멋대로 되어버린단다.

난 기적 말고는 어떤 것이 그 애의 기질을 바꿀 수 있을지 의심스럽구나. 난 기적을 바랄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그런 희망을 거슬러서 바라고 있단다. 그 애가 더 어렵게 되면 될수록, 난 더욱 더 선하신 주님께서 그 애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게 된단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가엾게 여기실 거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 18개월 밖에 되지 않았을 때, 레오니는 분명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병으로부터 치유되었지. 만약 하느님께서 그 애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려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애를 구해주실 수 있었겠니?

6월 25일에 출발하는 빠라이 르 모니알 성지순례에 그 애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 애가 복녀 마가렛 마리아의 친구를 통해 전에 치유되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당시에 난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난 해마다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에, 씨(Sees)의 성모님께 그 애를 데리고 갈 계획이란다.

비록 레오니가 제일 많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지. 마리와 폴린은 정말 신뢰할만하고, 셀린과 데레사에게서는 크나큰 약속이 드러나고 있단다.

마르탱 가정

이 당시, 마리는 열네 살이었으며, 폴린은 열세 살, 레오니는 열한 살, 셀린은 다섯 살, 데레사는 한 살 반이었다. 1873년 3월 16일에, 두 달 반의 나이에 이 집안의 아기(데레사)는 알랑송에서 몇 마일 떨어진 시골에 사는 유모에게 보내졌다. 건강 때문에 (다른 작은 데레사는 1870년에 태어났었는데, 두 달 밖에 살지 못했었다) 그렇게 되어 데레사는 다음 해 4월 2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레오니의 이모 엘리즈 역시 레오니가 기숙학교에서 돌아온 일에 대해 게렝 부부에

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적었다. “나는 젤리의 내일 방문을 기대하고 있단다. 행복한 방문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젤리가 레오니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지. 우리가 젤리와 함께 무얼 할 수 있을까? 얼마만 한 십자가를 참아 견뎌야 하는 건지! 난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가엾단다. 어쨌든 내가 동생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그래, 내 온 마음으로. 난 그분께 크나큰 믿음이 있단다.”

편지는 마무리되지 못한 채로 있다가, 그 후 며칠이 지나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졌다. “난 젤리를 만났지. 그 앤 체념하고 있었단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을 경우, 그 문제를 처리해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념했던 것이겠지. 그때까지, 젤리는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단다. 그래서 그 애는 레오니를 집에 데리고 으려고 했어. 젤리는 무척 기분이 상했지. 왜냐하면 방문회 수녀원의 애덕과 관대함이 자기 딸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너무 확신했기 때문이야.”

마르탱 가정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오명을 설명한다는 것은 난감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화와 덕행을 아주 강하게 지향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젤리는 씨 교구에서 추진하는 성지순례가 7월에 알랑송에서 빠라이 르 모니알을 향해 출발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레오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 내렸다. 레오니는 여행 간다는 생각에 미칠 듯이 기뻐했다. 왜냐하면 기차로 여행할 것이기 때문에.

낙담한 어머니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레오니에 대해

마음 앓이를 하고 있던 젤리는 올케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 “난 큰 애들 둘에 대해선 정말 만족해. 하지만 레오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완전히 슬퍼지고 만단다. 이따금씩 난 그 애에게 희망을 품지만, 자주 낙담하게 되어버리지. 하지만 언니 수녀님은 레오니가 성녀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해. 레오니 오후에 레슨 받는 것을 시작할 예정이야. 두 명의 노부인과 함께 말이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었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야. 난 그분들을 찾게 된 것에 대해 기뻐.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다다르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단다. 어쨌든 그 애는 자기 언니들과 더 잘 지내게 될 거야.”

유감스럽게도, 마르탱 부인은 그 노부인들이 전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레오니를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맡겨 돌보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레오니는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점차로 배우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레오니의 지쳐버린 어머니가 “그 애가 뭐가 될지 몰랐다”고 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레오니는 자기가 언니들과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면서, 유모가 자기를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레오니는 이런 두려움을 자기 어머니에게 고백했는데, 어머니는 레오니에게는 아예 유모가 없었다고 확실하게 안심시켜 주었다!

첫 영성체

그 당시 열 두 살이었던 레오니는 첫 영성체 준비를 할 예정이었다. 젤리는 올케에게 편지를 썼다. “레오니는 (고해성사를 보고) 사죄경을 받았단다. 그 애는 자기가 올바르게 준비를 못했다고 두려워했다. 그 애를 그런 사고의 틀 안에서 바라

본다는 사실이 마음 흡족하구나. 난 하느님께서 그분 자비하심으로 그 애에 대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희망한단다. 레오니는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지.”

나중에 레오니는 자신의 첫 영성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야 했다. “그 날은 제 생애에 있어 가장 멋진 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고통 속에서, 가장 쓰디쓴 시련 속에서 보냈기 때문이에요.”

다른 편지에서 젤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난 레오니가 좀 더 마음에 드는구나. 왜냐하면 그 애는 착해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애는 어떤 것들을 설명하라고 요청받을 때 답변을 잘 한다. 게다가 교리문답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지. 그 앤 자기가 클라라회 수녀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단다. 난 (두 살 된) 어린 데레사가 클라라회 수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받아들였을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 레오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지!... 그 애는 자기 잘못을 극복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레오니의 첫 영성체는 1875년 5월 23일 삼위일체 축일에 알랑송의 노트담 성당에서 있었다. 그 후, 레오니는 리지외의 게렝네 집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다. 처음에 레오니는 안 가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그래서 결국 레오니는 마음을 바꾸어, 그러한 방문이 정말 예기치 못한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정해버렸다. 그리고는 출발에 앞서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들 모두가 오로지 리지외에 대한 이야기만 듣게 될 때까지” 안달복달했다. 다시 한 번 레오니는 절제하지 못했다. 그녀는 반항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의욕에 휩싸여버린 것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의 향기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26)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1. 법열

이는 본 장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 주제이다. 성녀는 일련의 풍부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를 소개했다: “법열은 영의 오름이라든가 비상(飛上), 또는 영의 앗아감 등으로 불리지만, 결국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명칭은 같은 것을 뜻하며 이걸 또한 탈혼이라고도 합니다”(1절). 좀 더 후에 성녀는 익히 알려진 사도 바오로의 글을 상기하며, 여기에 ‘rpto’(황홀)¹⁾라는 용어를 첨가했다. 여기서 성녀는 거대한 이중적인 격렬함과 영의 비상(飛上)을 제시했다. 물론 여기서 성녀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일을 소개했지만, 의도치 않게도 이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신비 체험을 경험한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겪게 되는 영혼의 변모(transformación)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된다(18절).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는 합일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서 넘쳐 오르는 생명과 관련된 강력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신비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녀 테레사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를 부차적이며 주변부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합일’이지 이런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녀에 따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녀는 ‘법열’(arrobamiento)은 하느님과의 합일의 상태에서 신비가에게(그리고 성녀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것

은 단순한 합일 이상의 것이라고도 언급하고 있다: “황홀은 합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더 큰 효력과 몇 가지 특수한 다른 작용을 일으킵니다. 아마 합일은 황홀의 시작이고 중간이며 동시에 끝으로 생각되는데 실상 내적으로는 그럴습니다. 그렇지만 황홀의 다른 효과는 월등하게 뛰어난 차원에 속해 있으며 안팎으로도 나타납니다”(1절). 다시 말해, 이 황홀의 효과는 인격의 내면에서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상동).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인격의 내면과 외부에 대한 언급은 중요하다. 성녀는 이미 앞의 여러 장을 통해 법열의 본질을 영혼의 내면에 둔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법열은 밀도 깊은 애정적, 감정적 하중이 수반된 신적 신비에 대한 인식의 과함에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모토에 담겨 있는 내밀한 말과 더불어 응축되어 드러난다: “내 딸아, 영혼은 보다 깊이 내 안에 잠기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없애 버린다. 이제는 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단다”(자 18, 14).

이와 병행하는 『영혼의 성』 제6궁방의 다음 구절은 법열의 지적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어느 진리가 영혼 안에 깊이 새겨져서, 설령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의 믿음을 갖지 않는다 치더라도, 아무튼 하느님으로밖에 믿을 수 없기에, 그 순간부터 그분을 하느님으로 흠송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6궁 4, 6). 성녀는 이 점을 본 장에서 언급하기 위해 먼저 이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시했으며(1-3절), 다음으로 자신

1) 성녀는 이 용어를 ‘rrabto’로 잘못 표기했다.

의 체험에서 일어난 것을 바탕으로 언급하고 분석했다(4; 6; 18-21절).

여기서 성녀는 자연스레 정원과 물의 비유를 한 번 더 사용했다. 그러나 성녀는 다양한 상징이 담겨 있는 새로운 필체로 이를 풀어나갔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한 그 마지막 물²⁾이 너무 풍부하게 내리 쏟아지므로, 만일 이승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지존하신 구름이신 분이 몸소 이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 사정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주님은 영혼을 취하시어 마치 구름이 땅에서 증기를 빨아올리듯이 지상에서 그를 온전히 끌어올리십니다… 신적인 구름은 하늘 쪽으로 오르며 영혼을 데리고 가서, 마련되어 있는 왕국의 휘황찬란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2절).

더 나아가, 성녀는 상징적인 문학적 터치와 더불어 그 미묘한 내용을 표현했다: “가끔 법열은 온갖 생각과 도움을 앞질러서 너무도 맹렬하고 급격하면서도 세차게 쇄도해 들어와, 이 구름 혹은 이 사나운 독수리³⁾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을 그

날개로 낚아채 들어 올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3절).

성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법열이 어떠한지 증언하기 위해 제시한 이론적인 설명에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보다 강하고 분명한 체험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작용은 가능한 모든 저항을 배제하는 압도적인 힘과 더불어 드러나고 있다: “마치 힘센 장수와 싸운 사람처럼 싸운 뒤에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항하는 게 아주 불가능했습니다. 제 영혼은 없어진 듯 또한 머리마저 막을 길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몸까지 떠밀려

성녀에 따르면, 하느님은 독수리이자 구름이며 태양이다. 이 셋은 모두 성경적인 비유들이다. 독수리이신 하느님은 영혼으로 하여금 태양(=하느님, '정의의 태양')을 뚫어지게 바라보도록 그의 눈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는 당시에 익히 알려져 있던 독수리의 눈과 관련된 신화적인 전설을 반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수리는 태양을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끼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다. 또한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이 “태양빛에 저항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새끼들을 마치 남처럼 등지에서 쫓아버린다.” 성녀 데레사는 신명기 구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 비유를 훌륭하게 설명해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남들이 수월하게 거뜨히 해치우는 것을 보면 우리도 불현듯이 할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높이 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날아보리라는 생각이 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 새끼들이 어미 새한테서 날기를 배우는 것과 흡사합니다. 단번에 훨훨 날 수야 없지만, 차차로 제 어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3궁 2,12). 마침내, 하느님께서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실제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 주신다(자 39,12). 하느님이야말로 “위엄을 갖춘 힘센 독수리”(외침 14,4)이다. 성녀는 시편 103,5(“그분께서 네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 주시어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를 상기하는 가운데 독수리 신화와 불사조 신화를 하나로 만들었다.

성녀 데레사의 『서간집』에서 드러나는 ‘독수리/들(águila/s)’은 성녀가 1576년 이후로 편지에서 사용하던 암호화된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성녀가 그라시안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밀하는 ‘독수리/들’이란 맨빌 가르멜 수녀들을 일컫는다(서간 119, 1576년 9월 6일자 편지; 서간 121, 1576년 9월 9일자 편지). 또한 그것은 맨빌 가르멜 수사들을 일컫기도 한다: “페루초에게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밤의 새들이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독수리들(맨빌 가르멜 수사들) 가운데 있고 싶어 합니다”(서간 145,3: 1576년 11월 4일자 그라시안 신부에게 보낸 편지).

2) 성녀가 자 16, 2 - 18, 14까지 다룬 정원에 물을 주는 네 번째 방식에서 소개된 물을 밀한다. 참조. 자 18, 1. 19; 19, 1.

3) 이 비유는 비록 보편적인 문학적 상징에 속하지만, 그 역시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성녀 데레사는 이 용어를 늘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가운데 새, 날음, 날개, 불사조, 비둘기, 닭 같은 표현과 함께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 아마도 성녀는 탈출 19,4(“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과 신명 32,11(“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휘저으며 새끼들 위를 맴돌다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에서부터 이 표현에 대한 영감을 받은 듯싶다. 그러나 더 나아가 ‘독수리’라는 밀은 당시 문학 분야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동시에 대중 언어 속으로 여과되어 들어간 독수리와 관련된 신화적인 상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수리’는 성녀의 작품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성녀는 『자서전』에서 하느님을 ‘힘센 독수리’에 비유했다. 그 독수리가 영혼을 향해 격렬하게 날개를 들어 올리면 “영혼을 취해 마치 구름이 땅에서 증기를 빨아올리듯 지상에서 온전히 그를 끌어올린다”(자 20,2,3: 20,22,28). 그러므로

저서 들어 올려지기까지 했습니다”(4절). 여기서 우리는 성녀가 처음으로 육체적인 공중부양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현상은 그가 영(靈)에 받게 되는 은총의 효과들이다. 성녀는 계속해서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곤 했다.

심리-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열은 영혼 안에서 일종의 일시적 생명 정지 현상을 일으킨다. 이는 심리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 부분에서 높이 들어 올려지는 움직임도 일어난다. 이 상태에서 육체의 무게는 줄어들며 영은 날아오르려는 격렬함 속에 빠져든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합일이라는 본질적인 현상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라 해도, 성녀는 이를 정확히 묘사했다. 이 두 현상에 대해 증언하는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성녀의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영혼의 기능들의 정지와 관련해서: “사실 법열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은 마치 죽은 것 같으며 많은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언제나 황홀경에 사로잡혔을 때 그대로의 자세로 있습니다. 앉아 있던 손을 벌리고 있든, 여하튼 법열에 빠질 때의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감각의 작용을 잃는 일은 드물지만, 어떤 때 저는 그것을 온통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아주 드물고 잠깐만 계속될 뿐입니다. 흔히 감각은 뒤범벅이 됩니다. 스스로는 외부에 대하여 조금도 작용할 수 없지만, 소리만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립니다”(18절). 하지만, 이 현상이 무기력증은 아니다. 계속해서 성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황홀경이 끝난 다음, 아무리 애를 써 봐도 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육신의 힘을 모조리 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21절). 그러므로 이는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을 향한 강

력하고도 순간적인 집중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높이 들어 올려지는 움직임 역시 심리-육체적 특징을 수반한다: “제가 법열에 저항하려 할 때, 아무것에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저를 발밑에서부터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 몸이 무척 가벼워져서 무게가 온전히 없어진 것처럼 생각되고, 때로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6절, 18절). 여기에는 어떤 병리학적인 후유증이 뒤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성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상당히 병약한 데다 심한 통증에 시달린 제 몸은 때론 이로 인해 나아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21절).
-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심리-육체적 측면들을 넘어, 향주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것은 혼신을 다해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첫째 효과는 하느님의 지엄하신 권능을 보는 것인데,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가눌 수 없게 되어, 우리는 이제 이들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자기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고, 이들 은혜는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영혼 안에 깊은 겸손이 아로새겨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몸이 것처럼 땅에서 떠오르게 되었을 때 무척 두려워서 특히 처음에는 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영혼은 육체를 가장 큰 감미로움으로 들어올리긴 해도, 감각의 작용을 잃어버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땅에서 떠오른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감각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의 위엄을 보고 머리카락은 곤두서며 이렇

듯이 위대한 하느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렵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더할 나위 없는 열렬한 사랑에 감싸여 있고, 이 사랑은 임께서 썩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과분한 것임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 커집니다”(7절).

- 이어서 성녀는 법열의 순간은 짧지만 그것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효과는 강렬하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했다: “법열의 또 한 가지 효과는 뭐라 설명해야 옳을지 모를 정도의 근사한 이탈입니다… 그때 이승의 온갖 것에 대한 집착이 가셔지고 삶의 명예가 훨씬 더 괴로워집니다”(8절).

2. 하느님의 부재(不在)에 대한 고통

이 주제는 본 장의 중심 부분을 차지한다(9~17절). 또한, 이는 이 순간 저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이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가끔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아주 자주 있으며 심지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9절).

여기서 성녀가 말하고자 하는 고통은 “하느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이다. 이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밤’(noche)의 데레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디에 숨으셨나요? 신랑이여, 내게 탄식을 남기시고”(노래 B 1,1). 이 구절은 십자가의 성 요한과 성녀 데레사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반향으로서, ‘고독한 새’라는 성경의 이미지를 상기하며, 영혼을 정화하는 도가니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성녀 데레사는 “우리의 온갖 원의를 초월하는 극히 심오한 하느님의 인식”(11절)에서 오는 이 고통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성녀는 하느님을 자신 안에 모든 보화를

간직한 분으로 감지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지극히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다(9절). 이와 더불어 성녀는 그분을 지극히 필요로 하는 자신을 대면했다(11절). 그분에 대한 이런 그의 갈망은 존재 전체를 관통했다: “때때로, 영혼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세찬 소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눈 깜박할 사이에 영혼 안에 온통 스며들어 극도로 괴롭히므로, 영혼은 자신과 온갖 피조물 위에 아주 높이 초월합니다. 그때 하느님은 이 영혼을 이승의 온갖 것에 아무런 관심을 품지 않게 해서,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영혼은 자기의 반려가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 얻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하기가 영혼은 반려가 될 벗을 원치 않고 고독 속에서 죽는 것만을 동경합니다”(9절).

다시 말해, 주님의 부재로 인한 이 고통은 성녀가 피조물과 맺는 관계를 포함해서 그의 실존적인 상황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성녀는 고독 속에서 죽는 것만을 동경한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저는 잠 못 이루어 지붕 위의 외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혼은 이미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높은 부분, 자신의 맨 꼭대기에, 온갖 피조물 위에서 있습니다. 그는 보다 더 높은 곳에 살면서, 영혼의 가장 높은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있는 듯싶습니다”(10절).

심지어 성녀는 이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징후까지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성녀는 하느님과의 최종적인 만남에 이르기 위해 자신이 지금 자신을 정화하는 도가니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16절).

(다음 호에 계속)

* 어두운 밤 연구 *

어두운 밤은 우리의 유일한 빛(21)

레오나드 두한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현대 생활에서의 어두운 밤의 형태들

결혼한 부부들은 “어두운 밤과 고난의 시기” 를 직면한다.

결혼한 부부들도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직면하고, 그들 자신의 소명이 발전함에 따라 “어두운 밤과 고난의 시기” 를 직면한다. 가장 헌신적이고 낭만적인 부부들조차 영적 여정에서 어두움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부부가 변화된 가치, 삶의 중요한 행사, 성인 발달 단계들, 가정생활의 변화, 통과 의례, 상호의존에서 자율성으로의 변화, 그리고 다른 많은 평범한 삶의 경험들을 다루는 일은 그 부부를 어려운 질문으로 가득 찬 어두움 속에 빠뜨린다.” 1) 이때가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했던 옛 것들을 흘려보내고 하느님께 서 주시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삶의 비전에 함께 초점을 맞추는 시기다. 첫째, 결혼의 초기 단계에서 두 사람은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깊은 만족감을 발견하지만, 이때는 미성숙한 단계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 단계에 매달리고 싶어 하며,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발전과 미래의 풍요로움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르기를 바라면 갈등이 생긴다. “두 사람 모두 어두움의 시기로 들어가지만,

이러한 변화에 놀랐던 사람에게 공허감, 배신감, 증오와 분노로 그 어두움은 더 커진다.” 3)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부부가 그들의 이상과 대조적인 실패를 보게 될 때 세 번째 단계는 정화의 단계가 된다. “이러한 단계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때, 부부는 놀라운 힘이 필요하다. 더 진정한 사랑에의 부르심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를 버리고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정직하게 만나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 4) 네 번째 단계는 부부가 개인의 평등으로 옮겨가는 불확실함의 단계이다. 이렇게 강렬한 시기는 또한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서로 무력감을 느끼면서 계속된 갈등, 어두움과 공허감을 일으키는 시기의 다섯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양보와 더 깊은 상호간의 영성을 가지고 성숙한 사랑의 합일로 나아간다. 마지막 단계는 어두움이 지나고 하느님 아래에서 변화되고 더 성숙한 상호관계, 더 깊은 친밀감과 사랑의 동이 트는 시기이다.

사랑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요한은 합일, 부재 속의 합일, 합일 속의 부재, 그리고 충만한 합일에 대하여 말한다. 이 단계들에서 감각과 영의 정화는 분명한 평행선을 달린다. 부부 생활 초기에는 서로가 나누는 만족을 즐기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들로

1) Patrick J. McDonald and Claudette McDonald, “Dark Nights and Hard Days: A View of Marital Spirituality,” *Spiritual Life* 39 (1993) 150-159 참조.

2) 같은 곳.

3) McDonald, p. 544.

4) McDonald, p. 155.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들은 통제를 넘어선 사건들 때문에 점점 이러한 편안함에서 나오고 고통스러워하고 공허감을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거의 좋았던 것들을 놓치고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할 때의 정화적 경험이다. 그들이 이러한 어두움에 충실하고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 깊은 합일로 끌어당기신다. 결국 “어두운 밤”은 사랑의 시이다. 그들의 어두운 밤은 이끌어주는 밤, 새벽보다 더 다정한 밤, 님 안에 사랑하는 이를 변화시켜 사랑하는 이와 님을 하나 되게 하는 밤이 된다. 그러므로 “영적 부정적(否定)의 길은 결코 성적·육체적·낭만적 수준의 생활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깊고도 새로운 차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⁵⁾ 요한이 의미한 바에 따르면, 확실히 결혼 생활의 모든 위기가 어두운 밤이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 부부간의 영성을 포함한 결혼 생활의 모든 면이 하느님께 대한 완전히 통합된 선물로 합쳐질 때, 이 여정도 깊은 영적 정화, 재인식,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발견이 된다.

세상을 덮은 어두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현대의 상황을 보면, 어두운 밤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과 이러한 경험들 사이에는 뚜렷한 평행선이 있다. 앞서 말했던 그러한 경우에 밤의 은유와 그 영적 요구를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병, 우울증, 중독 등등을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때때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지만, 종종 기본적인 인간의 위기와 시련들-물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어두운 밤을 재촉할 수는 있겠지만-을 요한이 언급했던 심오한 영적 경험과 동일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요한의 조언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한은 우리가 위기를 통하여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의 조언을 따르면서 그와 비슷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위기에도 응할 수 있다.

요한의 고전적 시각에서 보면, 어두운 밤이 아닌 위기들이 종종 있지만, 바로 그 똑같은 위기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관찰자나 참가자들 사이에서 어두운 밤 경험들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구조들이 전례 없이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다. 최근에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고 재빨리 독재자가 되고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일단 권력을 쥐면, 민주주의란 단지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민주적 열망을 완전히 무시한다. 선진국들에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이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져다주는 현재의 상황만 단순히 연장하며 자신의 위치에 애착하는 늙은 남자들이 이끄는 완전히 고장이 난 정부들이 있다. 최근에 자신의 탐욕, 윤리성 부족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먹고 살려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금융계와 재계의 많은 영역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는 건강관리 산업 제공자들이 우리에게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주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을 팔 때, 건강 대신에 질병을, 치료 대신에 죽음을 주면서 기생충이 되는 것을 보았다.

정치가들, 금융, 기업, 의료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기주의, 탐욕, 권력에 대한 굶주림과 공동체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을 보게 된다. 선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때로 이러한 조직들의 악은

5) Mary Frohlich, "John's 'One Dark Night': Romantic, Political or Mystical," *Spiritual Life* 37 (1991): 41.

선의 흔적을 압도한다. 그러한 조직은 원래 공동체를 돕기 위해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악이 고착화 되었다. 이 모든 것 외에 미래에 관심이 없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찾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환경 파괴도 있다. 우리의 환경은 고통으로 울부짖는다. 이런 역기능逆機能을 가진 많은 이들은 전혀 변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어두운 밤 안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수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느님께 이르는 여정의 시작도 하지 않았고,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얻거나 교묘하게 속이기 위하여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황은 너무나 악하고 억압적이고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희망 가득한 계획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성찰하고 직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사회가 그렇게 썩었으며,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으며, 어찌하여 국민의 봉사자가 그렇게나 적은 것인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개인적 죄악, 무력함과 공허를 직면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수준의 사회적·조직적 죄에 빠져있다. 이러한 것에서 빠져 나올 방법은 없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유망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왜 저것은 저런 식으로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끝없이 이야기한다. 이런 두서없는 변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우리는 스스로 빠져 나올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회의 어두운 밤 안에 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보는 사회적 악을 포함하는 어두운 밤에 대한 개념이 있다. 요한의 시 “어느 어두운 밤에”는 그 시대 사회가 저지른 고통, 고문과 방치로부터 나왔다. 게다가 쇠신과 개혁에

대한 요한의 모든 노력은 그 시대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소망을 의미했다. 인간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것은 몇몇 이기적인 사람이 전용專用할 수 있고, 대다수는 빈손으로 남아 있다. 예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쇠신이 필요하다.⁶⁾ 이것은 사회나 교회에서 하향식으로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의해 고통을 받으며 하느님의 어둡지만 변화적 밤의 정화적 개입에 일신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스며들어야만 한다.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데 대한 현대의 장애물들

그리스도교 부르심의 축소된 이상

어두운 밤은 초대에 의한 것일 뿐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바라실 때, 사람들을 어두운 밤을 통하여 합일로 초대하시고 이끄신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원해야만 하고 덕행, 기도와 충실한 금욕 수련으로 그것을 준비해야만 한다. 요한은 어두운 밤에 들어가지 않은 온갖 종류의 이유들이 있다(『산길』 서문, 3-7)고 말한다. 그는 어떤 이들은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영성인들을 위한 맛있고 도덕적인 내용”(『산길』 서문, 8)으로 만족한다고 언급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께서서 제공하시는 합일로 우리를 이끌어줄 기회도 없는 종교적 수련에

6) Sr. Constance FitzGerald, "Impasse and Dark Night," in *Living With Apocalypse, Spiritual Resources for Social Compassio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4), 410-433, 특히 "Societal Impasse," pp. 422-425 참조.

서 물장구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요한은 자기 입장에서 우리에게 심오한 도전을 제공한다. 요한에게 출발점은 그가 인간 최악에 대하여 부정적 관점으로 제시한 낮은 곳이다. 요한은 영적 여정이 그 모든 도전들로 이루어진 더 긴 것이라고 제시한다. 마침내, 종착점은 사람이 변화되고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하느님화 될 때의 훨씬 더 높은 곳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자유, 성취와 은총의 여지를 준다. 그것은 위대하고 고귀한 부르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하느님께서 제공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동기(動機)를 강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우리는 영적 발전에 최소한으로 접근하려는 것에 대하여 예언자적인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우리는 목표를 “사랑을 통한 하느님과의 완전한 합일”이라는 산 정상에 세워야만 한다. 요한이 예상했듯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작은 것과 작은 소망들에 쉽게 만족하는데, 쉽게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애착은 앞으로 나갈 준비와 그런 마음을 가로막는다. 주변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부르심의 축소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선량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합일에 이르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두운 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현대의 장애물이다.

잃어버린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인식

교회 안에서 소비주의나 사목활동에 초점을 맞춘 너무나 많은 현대인의 생활은 단순히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종종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이 세상을 넘어선 생명의 왕국을 거의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신 하느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다. 우리는 가장 사소한 정도의 사랑의 합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보다 더 많은 것” (『금언』 12. 『노래』 29,2)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현대 종교는 신비적 열정 (『노래』 36,5. 11,10)으로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득 채운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작은 하느님을 자주 우리에게 제시한다. 하느님을 기다리거나 하느님의 응답을 듣지도 않고 주로 우리의 일방적 요구나 계획들로 이루어진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 하느님을 작게 만든다. 고요, 영감, 집중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거둠으로 향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 현존 안에서 살도록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은 매일의 사건들과 우리의 경이로우신 하느님의 신비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 보기, 가만히 앉아 있기,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심장 박동에 맞춰 숨쉬기, 휴식하기, 집중하기, 선택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기,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정화 활동을 인식하기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마음 거둠을 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해 주는 길이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서 하느님의 현존을 맛볼 수 있어야만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영혼의 성 연구 *

예수의 성녀 테레사, 영혼의 성 해설서(25)

키에란 카바나프, O.C.D./ 캐롤 리시, O.C.D.S. 지음
서한규(하느님 신비의 시몬) 옮김/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제 7 궁방 제 1 장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깊은 비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1. (1항) 테레사는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자비와 장엄하심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일은 없다고 쓴다. 하느님께서 피조물들과 친교를 나누시는 것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당신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우리 각자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평가를 받는 만큼 영혼을 높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은 비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제7궁방에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다.

2. (2항) 테레사는 수녀들에게 영적 혼인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안에서 영적 혼인을 축하하시는 신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먼 것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다.

3. (3-5항) 영적 혼인이 완성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그 영혼을 당신의 밀실, 즉 제7궁방으로 데리고 가신다.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서 혼자 사신다. 테레사는 그것을 또 다른 하늘나라라고 부른다. 은총 속에 있는 영혼을 어두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서 테레사는 그 반대의 것, 즉 은총 속에 있지 않는 영혼의 조건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영적 혼인의 은혜를 받은 은총 속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주제로 돌아온다. 그녀는 이러한 합일이야말로 영혼이 커다란 기쁨을 느끼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전의 합일과는 다른 것이라고 믿었다.

4. (6-9항) 제7궁방에서는 합일이 다른 방법으로 일어난다. 하느님께서 영혼으로 하여금, 낮은 방법이지만, 당신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보고 이해하게 하신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은 지적 현시라는 일종의 진리의 표현으로 드러나신다. 여기에서 성삼께서는 당신 자신을 영혼에게 전해주시고, 당신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영혼과 함께 살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다. 그 영혼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분명하게 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완전히 빠져들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것보다, 그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느님을 섬기는데 몰두하게 된다. 그 영혼은 어떤 것에서도 당신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하게 된다. 하느님의 현존은 밝은 빛으로 드물게만 인식되기 때

문에, 그 영혼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데레사는 설명한다. 현존의 경험의 분명함과 강렬함을 결정하는 이는 영혼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영혼은 언제나 그 현존을 즐기고, 그 의무가 끝나면 즐거운 현존과 함께 머무른다.

5. (10-11항)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영혼으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그 영혼은 완덕으로 나아간다. 그 경험으로 인하여 데레사는 그녀의 영혼에 분열, 복음의 마리아와 마르타로 특징지어지는 분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데레사는 때때로 마르타처럼 그녀의 영혼의 한 부분은 고요를 즐기는 반면, 그녀는 벗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시련 속에 버려졌다고 불평을 하였다. 영혼은 하나이지만, 데레사는 영혼과 영이 모두 하나라고 할지라도 영혼과 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에게 영혼과 기능들도 다른 것 같다고 그녀는 말한다.

설명

1. 데레사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낮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떨린다고 말하지만, 하느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조금 더 하느님을 알게 되는 이 궁방에 대한 설명을 간과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는 유혹처럼 보였다. 이제 그 영혼이 자기 소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 온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당신께서 살고 계시는 곳, 제7궁방, 거룩한 궁방으로 데리고 가신다. 데레사는 이 궁방에서 4개의 장을 할애한다. 무엇보다도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그 영혼을 변모시키는 삼위일체적 사실(fact-실제)이다(제1장).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함으로부터 유래했고,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인식된다(제2장). 그리하여 인류학적 차원에서의 거룩함은 인간의 풍부함과 새로운 삶의 발달 속에서의 새로운 자아의 성숙함의 사실(fact-실제)이다(제3장).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주체의 엄격한 한계를 넘쳐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인류 공동체를 위한, “야훼의 종”의 상태를 떠맡기 위한 은총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교회적 차원의 것이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자기 형제 자매들에 대한 봉사의 카리스마를 수반한다는 의미이다(제4장).

2. 데레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궁방에 대한 증언을 시작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이 영혼을 즐겨 가열케 여기실 때, 그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 온 것 때문에, 영적 혼인이 완성되기 전에 당신의 밀실, 즉 제7궁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지존께서는 하늘에서처럼 그렇게 그 영혼 안에 당신 홀로 사실 방을 가지십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성」 7, 1, 3).

이 은총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당신 자신과 합일시키시는 제5궁방이나 제6궁방의 것과는 다르다. 이제 당신은 다른 저 두 궁방에서의 합일처럼 영혼을 눈멀게 하시거나 귀먹게 하시지 않고 그 영혼과 합일하신다. 이 궁방에서 하느님께서 그 영혼의 눈에서 척도를 제거하기를 바라시고 그 영혼이, 낮은 방법일지라도, 당신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보고 알도록 하신다. 그리고 데레사는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 “그 영혼이 이 궁방으로 이끌려 들어오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은 지적 현시라는 일종의 진리의 표현으로 드러나십니다”(「성」 7, 1, 6). 그녀는 이 궁방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성삼께서는 당신 자신을 영혼에게 전해 주시고, 당신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영혼과 함께 살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성」 7, 1, 6).

3. 이러한 지고의 사건의 두 가지 요소는 인간적인 것과 삼위일체적인 것이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지금이야 처음으로 나타난, 하느님과 의 합일을 위한 운명이며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의 영 안에 집을 만드는 초월의 차원을 표현하는 태고부터의 층들이 드러난다. 데레사는 어쩌면 성 바오로에게 영감을 받아서 영혼과 인간의 영을 구분한다. 영혼은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은 초월적 차원이다. 거룩하게 하는 요소는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고 창조된 영의 이러한 깊은 곳으로부터 작용을 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데레사는 하느님만이 거룩하시고 모든 가능한 인간적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에 기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찬식은 삼위일체적 인장을 가져다준다. 세례의 순간부터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의 인장을 받았다. 이러한 은총의 풍성함에 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내재하시겠다는 지고의 약속을 하셨다. 생활에서 나에게 충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24, 23).

4. 데레사나 다른 신비가들에 대하여 특별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했다는 것이다.

아,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이러한 식으로 그 진리를 깨달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이 영혼은

나날이 더욱 놀라게 됩니다. 성삼위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심을…분명히 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그 영혼은 자기 자신의 지극히 안쪽, 매우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지합니다(「성」 7, 1, 7).

5. 「영적 보고」에서 데레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자기 영혼 안에 살고 계시는 또 다른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예수 승천 목요일 후 화요일에, 영성체 후 잠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산만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비참한 본성에 대하여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제 영혼은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세 분 모두가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지적 현시로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삼위이시며 일체이시라는 사실을 저의 등감함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 영혼은 일종의 드러나심-진리의 그림과 같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모두 제 영혼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셨고 오늘부터 제 자신이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저는 성삼께서 설명했던 방법으로 제 자신 안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성삼위께서 은총 속에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영적 보고」 13, 1).

우리가 「영적 보고」 14에서 보듯이, 이러한 현존은 1달 후에도 계속되었다. 1년 반 후에, 그녀는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상상적 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며칠 후에 희미해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시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영적 보

고」 29, 1). 그러나 실제로 그녀가 제7궁방에서 경험하기 시작한 이러한 현존은 1581년의 마지막 「보고」까지 계속되었다. …상상적 시현은 그쳤지만, 성삼위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러한 지적 현시는 언제나 계속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러한 지적 현시는 훨씬 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러한 상상적 시현들이 영혼을 현재 상태로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이 너무나도 비참했고 거의 힘도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제 영혼을 이끄셨습니다. 제 생각으로 시현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올 때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분명합니다(「영적 보고」 56, 3).

6. 데레사가 「영혼의 성」에서 그녀의 경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후일의 본문에 곤란한 문제를 야기했다.

그 영혼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자면 시각을 통하여- 물론 우리가 상상적 시현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각은 육체의 눈이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성삼위께서 다 함께 영혼과 사귀시고, 영혼에게 이야기하시고, 당신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영혼과 함께 살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성」 7, 1, 6).

이 구절은 데레사 시대의 신학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들만 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루이드 데 레옹 수사는 그녀의 이 본문을 처음으로 편집하면서 방주(여백에 쓴 주-旁註)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편집본에서는 본문 옆에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시작

했다. “감각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의해 올림을 받은, 이승의 어느 사람이, 말하자면 성 바오로나 모세의 경우에 사실인 것처럼, 지나는 길에 당신의 본질을 볼 수 있지만… 데레사는 이러한 종류의 시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에 따르면 말해야만 했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루이스 수사 전에, 저자의 대담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안해 했던 또 다른 신학자였으며 데레사의 친구, 가르멜 수도자 예로니모 그라시안은 그 본문에 직접 수정을 가했다. 그는 선을 그어 지우고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그 영혼은 거기에서 더 잘 이해합니다. 육체의 눈이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닐지라도, 시각을 통해서 아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데레사의 증언의 순수한 포도주를 희석시켰다. 우리의 질문은, 신학자들은 그들의 해석에서 데레사의 예언자적 증언에 충실하였는가?

7. 증언을 하도록 불림을 받은 예언자로서 그녀의 역할에서, 데레사는 그녀 시대의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가 경험적 증언으로부터 기대하는 사실성으로 그녀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녀의 설명과 설명할 수 없는 것,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 경험 사이의 심연에 갇혔다. 그리고 그녀는 신학적 범주의 좁은 한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신학자들은 「영혼의 성」의 이 부분들을 들어 종교재판소에 그녀를 고발했고, 이 일은 그녀가 시복 대상이 되었던 시기에 로마에까지 달았다.

8.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궁극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미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를 우리 안에 모시도록 불림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 23).

‘오, 흠숭하올 삼위일체의 하느님, 제 자신을 완전히 잊고 마치 제 영혼이 이미 영원 안에 있듯이,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당신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도 저의 평화를 뒤흔들거나, 제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순간마다 당신의 심오한 신비로 더 깊이 데려가 주소서. 오, 나의 변치 않는 분이시여! 제 영혼을 평화롭게 하소서. 제 영혼을 당신의 천국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거처, 당신의 휴식처로 삼으소서. 제가 결코 당신을 그곳에 홀로 두지 않고, 온전히 그곳에 머물러, 온전히 깨어 있는 신앙으로, 당신을 온전히 경배하며, 당신의 창조 활동에 저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의 기도)’.(「가톨릭교회 교리서」 260)

논의를 위한 질문

1. 우리가 영혼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느님께서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3. 우리가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매우 관대한 선물은 무엇인가?
4. 하느님께서 영적 혼인의 은혜를 내리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가?
5. 영혼이 중심의 궁방에 이끌려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6. 영혼과 영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음 호에 계속)

* 회원의 글 *

나, 오늘은

이현주 예수의 에우제니아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나, 오늘은
조용함 안에 머무르기 원하네
아주 깊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긴 침잠을 아네
시간도 멈추고
사유도 멈춘 그 안을 아네

느낌도 어떤 표현할 언어도 없던 그 안을 아네.
머물다 돌아 나와 보면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알아내지도 못하는 그 점(點)
평화와 표현할 수 없는 고요를 아네
밋밋함의 순결함 안에 가득 찬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다 덮어버리네

침묵의 소리들이 향한 그 의지는
사랑임을 알아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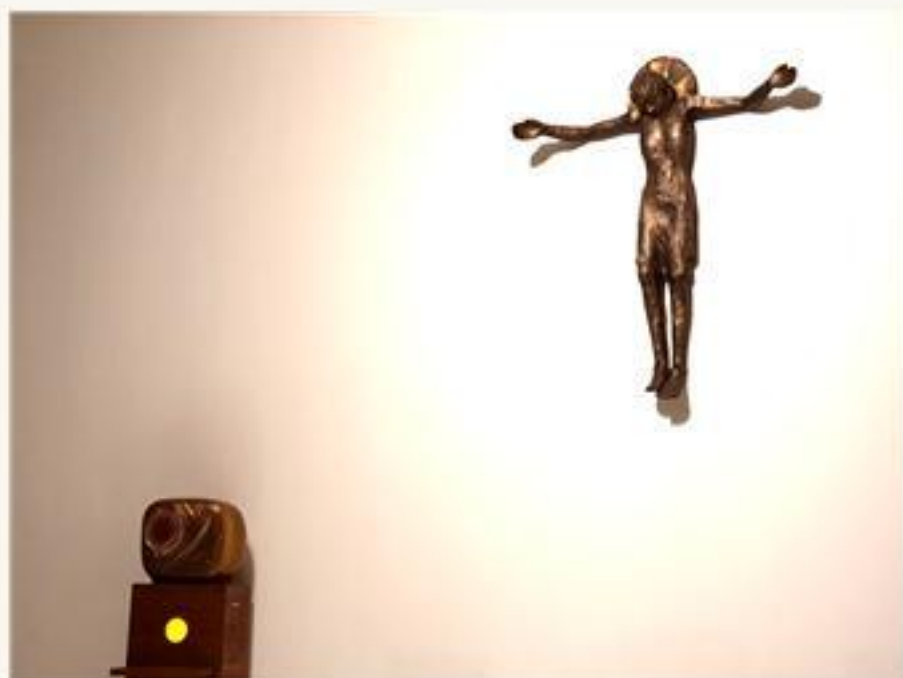
무가치함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씻김과 절제의 덕을 품고
하나씩 덜어낼 정화의 길을
이제 무서워하지 않네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노인의 귀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듯하네.

어둠 밖
그 여명을 알아듣고 있네.

나, 오늘은*

* 성소 *



가르멜로 74-56길

제목설명: "가르멜로"는 길 이름이면서 동시에 '가르멜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4는 한국에 가르멜 남자 수도회가 창립된 해를 뜻합니다. (1974년 9월 8일) 그리고 56은 2021년 현재 저희 남자 수도회 형제들의 인원수입니다. 앞으로 56길이 아니라 60길, 70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매달 연재를 하겠습니다.

-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

파스카 신비를 보내고 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던 파스카는 '건너감'을 뜻한다. 어디로 건너가는 것일까? 종살이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느님 아닌 곳에서 하느님 계신 곳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물론 여기서 종살이, 죽음,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 우울해지고 가라앉는 마음, 나르시시즘 등 자기애(自己愛)에 얽매어 사는 사람 역시도 자신은 모를지 몰라도 어둠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물론 쉽지는 않다. 자기애(自己愛)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이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래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게다.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 시간을 내어놓는 어떤 이,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입맛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는 부모를 떠올려보면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나에게서 벗어나 너에게로 향하는 여정. 이렇게 본다면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만큼, 파스카의 신비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것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부활을 보내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부활 축하 메시지가 전해온다. "부활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가 허공에 날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직 내 삶을, 옆의 사람과 상황들을 기도하며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것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도해야겠다.*

성소문의: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시와 해설

나 안에서 널 찾아라

BUSCATE EN MI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영혼아 너 찾기 나 안에서 하고
날랑은 너 안에서 찾기로 하라
2. 사랑이 묘한 숨씨 있어
영혼아 너를 나 안에 그렸으니
화공(畫工)이 아무리 능하다 한들
이런 모양을 이런 숨씨로
어이 다 떠낼 수 있겠느냐
3. 사랑으로 지어진 너
어여쁘고 고운대로
내 안에 그려져 있으니
내 사랑아 널 잃거든
영혼아, 너 찾기 나 안에서 하라
4. 내 가슴에 본떠진 너를
분명 너는 마주 보리니
참다랗게 나타난 모습
살은 듯이 나타나 있어
너를 네가 불량이면 기뻐하리라
5. 나 만날 곳 어디인지
행여 너 모르겠거든
이곳저곳 헤매지 말라
나 보기가 소원(所願)이거든
나 찾을 곳은 네 안이니라.
6. 나 머무는 곳 바루 너
너는 내 집 내 방이로다
마음 속 문을 굳이 닫고
네가 있음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렇듯 부르노라
7. 네 밖에서 날 찾지 마라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나를 부르면 그만이리라
지완(遲緩) 없이 내 가리니
나 찾을 곳은 네 안이로다.

해설

성녀 데레사가 쓴 이 시(詩)를 읽다보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럴듯 오랜, 이럴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수서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그 옛날 세속의 한복판에서 허우적대던 성인이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이교의 거짓된 교설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정적으로 회개를 하던 날의 심경을 위의 문장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품에 안겨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맛보던 광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데레사 성녀는 자서전에서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신다’는 이 시의 주제 역시 거기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화자(話者)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인간 각자의 영혼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된 이 시를 통해, 성녀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깨우치는 가르침을 주려고 이 시를 쓰셨다.

1절에서 성녀는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우리 영혼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각자의 영혼 안에 계신다고 선포한다.

2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당신 안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신비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은 피조물은 감히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당신만의 작품이라고 밝힌다.

3절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

간의 아름다운 영혼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거듭해서 말한다.

4절에서 영혼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5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찾으려고 쓸데없이 방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라고 하시면서,

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은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며 방인데,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이 문 밖에서 당신을 찾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7절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 영혼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당신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부를 때, 하느님은 거기 각자의 영혼 안에서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리라고 말씀하신다.*

* 선교 *

펠릭스 신부님

서창규(어머니 마리아의 알로이시오) 신부/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하느님께서서는 대만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만남을 선물해주신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 이 삶을 더 감사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펠릭스 신부님을 처음 만난 것은 언어학교 기말고사 때다. 여러 반 학생들이 함께 모여 보는 기말시험, 맞은편에 앉은 한 사람이 보였다. 순간 속으로 ‘신부님이구나’ 했다. 중년의 나이에 뭔가 반듯해 보이는 인상과 온화한 분위기가 신부님의 모습이었다. 이미 대만에 온지 1년이 지났던 나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시기는 지난 터라 굳이 먼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였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1주일에 하루 여러 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에 그 신부님도 계셨다. 그 수업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펠릭스 신부님은 말레이시아 교구신부님으로 조부모님이 화교(華僑)라 외형적으로는 우리네 동아시아인의 모습이다. 신부님은 교구장 주교님의 명으로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원래는 9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1년으로 늘었다. 말레이시아에 화교(華僑)교우들이 꽤 있어서 사제들이 중국어를 한다면 신자들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

신부님의 이력이 흥미로웠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에서 잘 나가던 회사원으로 살던 중 사제성소를 느껴 교구 신학교에 입학했다. 교구에서는 바로 로마로 유학을 보냈고, 로마에서 대

학원까지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서품을 받으셨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본당사제로 사목하시다가 작년에 대만에 중국어를 배우러 오신 것이다. 올해로 서품 17년차.

신부님과 처음으로 점심을 같이 먹게 된 날, 신부님과 나의 관심사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도생활에 관한 주제로 신나게 얘기를 하던 중 신부님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오랜만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었다며 아주 좋아하셨다. 이후 신부님과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한번은 대화 도중 신부님이 “우리의 중국어가 완벽하지 않지만 대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배경지식이 같기 때문이지.”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다.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해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신기했다.

급기야 신부님과 나는 서로의 고해사제가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서로 고해성사를 주고받는데, 고해성사에 임하는 신부님의 태도와 신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곤 한다. 또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어린 신부를 대하는 모습이 나 마음가짐이 나를 놀라게 한다.

작년 말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었는데 신부님의 조언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인생선배로서, 신앙선배로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찬찬히 얘기해주시며 기도와 함께 힘내라는 응원이 그 시간을 견디는 데 격려가 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이곳 대만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섬세한 하느님의 배려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다.

어느 날 신부님이 씩 웃으시며 “나는 대만에서 너를 만난 게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내가 대만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겠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라며 친근함을 드러내셨다. 사실 나 역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말씀해준 신부님이 감사했고, ‘친구’ 라는 표현이 뭔가 황송(?)하고 어색했지만 따뜻하게 다가왔다. 정말 신부님은 평소 나를 친구처럼 대하신다.

신부님은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나를 초대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해주신다. 그래서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된 대만의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꽤 많다. 하느님께서 이를 통해 또 어떤 일들을 마련해 나가실지 희망찬 시선을 두게 되는 지점이다.

신부님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는 하느님께 대한 갈망과 선함을 지닌 사람과의 인연이 계속될 것임을 알기에

든든함이 있다. 그리고 삶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임을, 그래서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도 있음을 알기에 다시 기쁘게 만날 날을 기대하며 웃으면서 손 흔들고 싶다.*



* 옹달샘 *

성 요셉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마태 1, 16)

위의 성경 말씀에서 요셉 성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정녀 마리아의 배필이시고,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의 가장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셨지만, 만일 성모님께서 남편이신 요셉 성인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그 모든 위험과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요셉 성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참으로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의인(義人)이신 요셉 성인을 성가정(聖家庭)의 가장(家長)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 안에서 성인(聖人)이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존경하셨습니다. 원죄(原罪) 없으신 자신과는 달리, 남편이신 성 요셉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도, 사욕편정으로 기울어지지 않으시고, 지극히 정결하셨으며, 침묵을 잘 지키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성가정을 잘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높고 깊은 덕은 하느님을 경애(敬愛)하는 마음과 이웃을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참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신께 맡겨주신 아내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자(聖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이끄셨으며, 있는 힘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앞에 나서시기보다 뒤로 숨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며 하느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일치(一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 만일 누가 기도의 주보성인을 아직 못 정했다면 요셉 성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요셉 성인은 노동자(勞動者)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한 기도시간을 잘 지키셨고, 일을 하실 때에도 마음은 늘 하느님께로 향하신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아버지이신 성 요셉께 존경심과 사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하늘에서도 아버지이신 요셉 성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자의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이 중대한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신 다음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랑하시는 아내 성모 마리아와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지상 생애를 마치고 숨을 거두시며 천국에 오르셨습니다. *

* 회원의 글 *

보호자이신 성모님!

이정미(아기예수의 헬레나) /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모진 수난 다 겪어내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맞이하는
찬란한 계절 오월에
성모님을 특별히 기리는
아름다운 날

이 새벽 하루의 길을 나서며
먼저 어머니부터 찾는 이유는
나의 주님께서 거니는 정원에
늘 길을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헛길로 빠져들어
애태우게 하여 드려도
넓은 옷자락으로
그 허물 다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병마가 점령한 낯설고 캄캄한 앞길
어머니의 따스한 눈길이
언제나 지켜 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청할 것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철부지들의 허름한 기도자루에
봉헌의 새잎이 돋아나도록
전구해 주소서

전 생애를 오롯이 봉헌하신 어머니!
당신의 아드님을 만나러
길 떠나는 저희를 늘 보호해 주소서



* 묵상 *

생각한다. 신비로운 빈틈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신비스러운 차원으로 남아 있는 알 수 없는 빈틈이 있다.

생각한다. 전혀 알 길 없는 예수님의 청년기, 공생활 이전의 모습을. 그저 소박한 목수 아버지와 청년 목수 예수님.

소박한 천에 감싸인 채 숨어계신 앓된 하느님을. 흙으로 된 천막(지혜서 9,15)안에 숨어 계신 맑고 투명한 바람을, 하늘을.

영원으로 통해 있을 손가락으로 취하셨을 지상의 음식과 그 음식을 마련하시기까지 노동과 성실함으로 지상의 삶에 한 점 망설임 없이 충실하셨을 당신의 순간들을.

공생활 이전의 당신은 그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누추할 수밖에 없었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에, 가 닿는 모든 순간의 눈길과 손길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강복하셨음을.

생각한다. 땀과 함께 흐트러져 있는 예수님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던 바람은 어디로 불어 흘러갔을까? 생각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삶 한 가운데서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코린토 1서 7, 31)이 전부인 것처럼, 욕망에 대한 갈증을 바닷물로 풀어대더니 더 목마르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가지셨을 그 연민을.

당신의 전 생애를 관통한, 희생제물로서 아픈 죽음으로 마치리라는 사실을 품고 사셨던 당신 삶의 매 순간순간을. 생각한다.

잡히신 당신이 홀로 감혀서 새벽 동이 터 올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샌 춥고 긴 밤의 고뇌를. 생각한다. 잡히신 후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당신께 물 한 모금 건넬 수 없었음을, 물 한 모금도 건넬 수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한다. 당신의 타는 듯한 그때의 갈증이 우리 영혼이었음을.

생각한다. 신비롭고, 거룩한 빈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순간부터 아드님의 시간 속에서, 함께 춥고 멀시 당하고 매 맞고 이리저리 이른 새벽부터 끌려 다니셨을 어머니의 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세 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순간도 아드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을 마리아님의 시간을.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비롭고 거룩한 통고의 빈틈.

십자가에 못박힘 2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산 채로 돌이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말없이 서 있는 그곳을.

(안나 아흐마토파 1943)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제작 감독한 사람은 아드님의 아픈 죽음의 길을 함께 하는 마리아님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한다.

죽음보다 깊은 아픔은 침묵으로 삼켜지고, 예언자 시므온의 외침에서부터 이미 당신 심장의 상처로 각인된 그 순간은, 이제 지상을 뛰어넘어 영원으로 향한다. 아드님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에 닿아 하늘을 향한다. 통고의 벽을 뚫고 나온 영의 상승은 지상의 비루함 위로 자유를 획득한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을 늘 침묵으로 껴안으셨고 그 앞에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로 답하신 어머니

사심 없어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당신의 영은 심장이 칼로 꿰뚫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스런 그 자유를 결코 놓지 않

는다. 그로써 당신은 모든 것을 또다시 당신의 '피앗' 으로 모은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진리이고 사랑이시니 당신께 온전히 내어 맡긴 저의 이 '피앗' 은 언제나 울음을 제가 아나이다. 오늘은 저의 피앗 한가운데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저의 죽음도 들어있나이다. 받으소서.'

마리아님, 당신 아드님의 죽음으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완성하셨나이다.

생각한다. 마리아 막달레나 놀라서 어쩔 줄 몰라 서성이고만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아침을. 생각한다. 아! 어머니 마리아님의 그 아침을.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후 곧바로 성모님께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고통으로 짓이겨지고 꺾어져서 너무도 주님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 첫 순간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성모님께서 너무도 필요하셨기에 성모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오랫동안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성녀 데레사, 영적 보고 13-12)

생각한다. 부활하신 당신께서 어머니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신 태초의 아침처럼 새 것인 그 아침을.

생각한다. 신비로운 빈틈, 당신의 어머니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그 아침은 태양처럼 빛나는 첫날이 되었음을.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군중을 선동해 당신을 죽인 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선동 당한 우매한 군중 앞에 태양처럼 보란 듯이 드러내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 신비로운 빈틈, 두려움과 실망으로 생계를 위해 바닷가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에게 호숫가에서 물고기 몇 마리 굽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생각한다. 신비로운 빈틈, 제자들과 물고기 몇 마리 구워 드시는 호숫가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 신이신 당신이 사람에게 애원하시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생각한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멀리서 보면 가난한 어부들이 소박한 한끼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그 장면이 아무도 믿지 못할 기적으로 부활하신 성자께서 함께 하신 곳임을.

생각한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손바닥보다도 작은 무명천으로 우주를 덮고 계시는 당신을.

생각한다. 당신 탄생 순간의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당신의 '부활' 역시 조용하고 깊은 침묵 안에서 영원을 향해 나 있는 사건으로, 믿는 이의 가슴으로만 들어 와 별이 되었음을.

부활하신 그 아침은 기적이고 놀라움이고 하늘이고 천국인데, 천국을 한 뼘 누더기로 가릴 수라도 있는 듯이 그들은 당신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음을, 우리는 믿지 않음을. 거대한 진실 앞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생각한다.

당신은 지상에서 충실한 '인간' 을 삶으로써 '신적 교환' 을 이루셨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오 5, 48)는 당신의 요구만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

생각한다. 당신의 신비로운 빈틈 안에 우리가 들어 있음을, 우리의 선택을 위해 풍요로운 그곳이 있음을. *

* 회원의 글 *

빈집의 노래

반숙자(성 요셉의 벨라뎃다)/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몸은 아파트에 두고 마음은 농막에 삽니다. 반지꽃이 뜰을 가득 채우는 요즘, 베란다에 나가면 해지는 줄 모르고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 먼 산 바로 밑에 두엄 내 그득한 농막이 있고 잡초가 우거진 사과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에는 주목이 파란 주단을 깔아놓았을 테고 언덕에는 산당화가 날 기다려 송이송이 피었겠지요. 안 봐도 눈에 선한 농막 뜰, 화단이랍시고 붙여놓은 풀밭에는 지금쯤 삼일국화가 지천으로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마르게 그리운가요? 가 봐도 사람은 없고 정적만 도는 외딴 터 빈집인데 앉으나 누우나 생각이 나니 병은 병인가 봅니다. 그곳은 45년 전의 시간이 퇴적돼 있고 기억의 단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 되겠어, 이러다가 탈이 나겠어.’ 나는 김밥 두 줄 싸고 과일이랑 온수병 챙겨 택시를 부릅니다. 말릴 사람이 없으니 자유로운 몸, 모자 눌러쓰고 빈집을 찾아 갑니다. 먼데서 빨간 지붕이 손짓을 합니다. 가슴이 뛵니다. 반년 만의 해후입니다.

마당에는 민들레가 제멋대로 피어나고 냉이랑 썩들이 저들 세상인양 활개를 칩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터지는 뜰 “왜 이렇게 늦었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가 되고 남편 요셉의 목소리로도 들립니다. 아 그렇지, 우리 세 식구가 여기서 살았었지. 나는 사과과수원 일머리를 1도 모르는 뜨내

기여서 두 분의 속을 엄청 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청구를 들으면서도 처음으로 자연과 교감했고 흙을 만지는 순간순간이 경이로워 새 생명을 사는 것 같았지요. 하느님이 세상천지에 다 계신대도 믿지도 느끼지도 못한 머리만 큰 여자가 비로소 천지만물 안에 현현하시는 창조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보따리는 현관에 던져놓고 앞뜰 뒤뜰을 훑어봅니다. 일꾼 방 옆에 심어 해마다 몇 자루씩 따던 매실나무가 없네요. 그 뒤로 울타리삼아 둘러 심은 쥐똥나무는 부쩍 자라 영성하지만 참새들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하얗게 피던 배꽃, 두 팔 벌린 간격으로 흐드러지던 사과나무는 그루터기만 반겨줍니다. 균열이 생긴 벽에 세워둔 녹슨 사다리, 과수원을 한 바퀴 돌아도 넉넉한 소독 줄, 제자리를 잃은 쇠스랑과 삽과 호미, 어른거리는 아지랑이 속 흔들리는 얼굴들. 집은 헐고 남루해 쓰러질 것처럼 야위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은 한없이 편안해 보입니다. 일꾼들 불러 모아 사과 따고 벼 타작하던 때보다 더 넉넉해 보입니다. 나보고 너도 편안하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편안해지는데요? 불멘소리로 묻습니다. “놓아버려” 혼자서는 안 되는 일. 먼지 쌓인 마루, 횡한 방들, 바람이 제멋대로 불어왔다 불어가는 집, 누가 머물다 갔는지 흔적도 없는 집, 열쇠 없는 집,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없는 집. 집은 기억의 오라기 다 풀어서 망

각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비어가는 것이 농막뿐이 아닙니다. 아파트에도 방 임자들이 하나씩 떠나고 빈방으로 기억의 우물만 남겼습니다. 아프고도 질긴 기억 낱알이 고이고 고여 넘칠 때, 숨 넘어 갈 것 같은 절박한 몸부림을 집은 알고 있을까요? 비단 내 집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삶과 죽음의 연속선상에 사는 인생이니 집집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사건들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건을 뼈아프게 겪으면서도 태연한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그것은 대하로 흐르는 망각의 힘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망각의 힘에 고마움을 안고 삽니다. 사람의 기억이 시퍼렇게 살아만 있다면 기억의 창고인 두뇌가 팽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빈방에서는 농막의 허허로움이 없습니다. 모두를 놓아버린 오래된 체취가 없습니다. 아직도 인연의 끈에 매달려 있기 때문인가요?

재미있는 것은 이 허름한 농가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인연인 어느 스님은 이곳에 조출한 절집을 짓고 싶다고 하고 명상수업을 하시는 수녀님은 명상의 집을, 어떤 자매님은 피정의 집을, 어떤 젊은이는 원룸을 몇 채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상상은 자유이니 듣고만 있지요.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은 퇴하면 집을 밀어내고 별장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웃을 일이지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집에 집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폐허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기묘한 아름다움과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폐허가 된 커크햄 수도원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이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

이 단지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허물어지고 퇴락한 잔해가 주는 어떤 독특한 울림이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우리 농막이 그럴다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곳에 살던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친근함, 비록 허술한 농가일망정 한 세대의 삶의 터전이었고 희로애락의 산실이었던 공간이 체화된 울림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득 찼을 때는 느끼지 못한 서늘한 포근함, 세상 무엇도 다 품어줄 것 같은 편안함.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느님 한 분만 계시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일 텐데 나는 너무 멀리 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가르멜 재속회에서 단독회원으로 산 지 오래입니다. 가르멜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며 떠나지도 못하고 농막을 그리워하듯 기웃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르멜 안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지만 노력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항구하지 않으니 하느님 보시기에 참 딱할 것입니다. 그래도 책상머리에 하늘에서 보내주신 기별인 양 쪽지 하나 붙여놓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가슴에 품고 살며 많은 은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 다 지나가는 것 /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요새는 몸도 마음도 빈집이 되기를 꿈꿉니다. *

* 회원의 글 *

깊고 더 깊은 곳으로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온 세계 인류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치명타를 입히고도, 변형까지 해가며 유유히 자리 잡는 코로나 19. 지치지 않고 날고뛰는 요놈 꼴이 풍토병을 연상시키니 마음이 천근이다.

인간이 이처럼 심각한 공격을 당하기는 처음인 듯.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라고 할 만큼 병은 인류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아테네와 로마제국의 멸망도 역병(疫病)에서 시작됐고 페스트는 중세 유럽을 붕괴시켰다. 그러나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의 소멸을 선언했고 콜레라, 페스트(흑사병), 나병과 같은 어마어마한 전염병들도 더 이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한다.

1821년(순조 21년) 8월. 그때에도 콜레라가 돌아 설사, 구토 등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 당시에는 괴질(怪疾)이란 이름 자체로 불안·공포·고통·죽음, 그리고 허둥댔다. 인도의 갠지스강에서 비롯하여 중국을 거쳐 전국을 휩쓸고 대유행한 이 괴질은 30년 후인 1858년에도 있었다.

박경리(朴景利, 1926~2008)님은 한국문학의 한 획을 그어주신 분이다. 이 분의 대하소설 “토지” !!!.(여기서는 모두가 주인공이다.) 최참판 댁, 매력적인 주인공 서희는 할머니와 엄마같은 유모를 콜레라로 잃는다. 최악의 인물, 조준구는 거두어 준 최참판 댁 주인이 비명횡사하자, 비열하고 악랄한 악행으로 뼈대 있고 유서 깊은 최참판 재산 모두를 약탈한다. 끝인

음식을 섭취함으로 콜레라는 이겨내나, 성장한 서희의 지체로움으로 고택과 전답 모두를 되돌려주고 몰락하게 된다.

결핵은 일제시대 이후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 산업화, 도시화의 부산물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식민지 조선이 세계 제일의 사망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그렇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결핵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종로구 통인동 154번지 골목 안의 ‘날개’의 작가 이상(李箱 1910~1937 미술, 문학 등 모든 방면에서 천재적 재능을 지님), ‘물레방아’는 1925년 9월 조선문단에 발표된 나도향(1902~1926)을 대표하는 단편소설이다. 이 두 분께서도 결핵(폐병)으로 돌아가신다. 이 병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질이 나쁜 질병이다.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이다.

중세유럽에도 무시무시한 괴질, 페스트가 있었다. 쥐벼룩에 의해 생성되었고 징기스칸의 서방원정과 더불어 이동한 아시아 쥐들로 번창하여 맹위를 떨쳤다는 생태학적인 가설도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를 비롯하여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등장했다. 에이즈, 에볼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등이 세계로 골고루 퍼져나가고 있다.

코로나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집콕 등으로 버텨온 지 벌써 1년이 넘는다. 밖

에 나가는 일이 제한을 받게 되고 삼시 세끼니를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참 겪는 세상이 되었으니 온갖 음식, 생활필수품의 주문택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 주문은 인공지능(AI)으로 반자동화되어 시간과 인력이 절약된다. IT(정보기술)발전이 불러온 언택트(사람을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파워를 받음), 말하자면 비대면화(非對面化)된 것이다.

이렇게 물류 운송이 최첨단화 되어가는 것만큼 교육계 역시 비상이 걸렸다. ‘원격수업’이란 새로운 교육방법이 대두되며 아이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서 선생님과 줌(zoom, 화상, 음성 기능이 제공)형태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부재는 화면으로 점검된다. 교육부에서는 하느라 하지만 학력 손실은 물론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대인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라며 우울감과 무력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다한다. 가슴이 저리다. 원격수업으로 학습은 대충 보충할 수 있지만, 생활, 건강, 관계, 정서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학생을 보듬고 발달시키는 학교의 역량은 대신할 수 없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재택근무”는 화상회의로 잠깐씩 근무하게 되니 질 좋은 직장인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느냐, 죽느냐.”가 연극이 아닌 실제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는 최고의 악마요 사탄이 되었다.

이사야 38,3~7에서 주님께서서는 히즈키야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신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경우, 주님과 관계는 물론, 가족관계 역시 으뜸이 된다. 집콕하는 자녀에게 삼시세끼를 해 주고, 함께 놀아 주고 공부도 도와주는 현모양처도 있다. 돌봄을 받는 아이와 자의는 아니지만 방임되는 아이들 간의 학력은 하늘과 땅 차이.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사회. 이렇게 우리는, 정든 옷을 토지의 서희에게, 이 시대의 현모양처에게 건네고자 한다.

관구장으로 계시던 2007년 새해에 김영문 신부님께서 권두언으로 실으신 글이 있다. 마치도 오늘의 현실을 예견하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의 말씀인 듯 따뜻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

-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 병들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하느님을 찬미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묵만 할 수도 없습니다.
-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하고, 특별하고자 하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좋아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 나만의 맛과 음식을 까다롭게 추구하는 탐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 영적 친구를 사귀고 나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 시간을 내어 우주 만물, 자연이 베푸는 사계절의 풍성함을 즐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 모든 것을 가르멜산의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야 합니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위로해 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아멘!!!*

* 회원의 글

아버지는 주무시고

박계용(예수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창밖으로 하늘거리는 꽃 그림자가 눈에 어립니다. 며칠 비몽사몽 기운 없는 날이 흐르고 새벽에 잠깐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큰언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지요. 저는 병원 예약 시간이 다 되었다며 준비를 서두르는데 옷소매가 영 들어가지 않아 애를 태우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정말 약속 시각이 30여분 남아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알람을 맞춘 것이 분만 앞당겨 놓아 오히려 한 시간이 늦어지는 실수를 저질렀나 봅니다. 다행히 십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가까스로 제시간에 당도하였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착각을 한 시간 때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꿈에서도 걱정하시는 아버지가 날 깨워주신 것만 같아 하느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을 떠올렸지요. '데레사' 라고 자신을 소개한 담당 간호사의 정성스러움과 몇 겹으로 덮어주는 따뜻한 면 담요는 데레사 성녀의 손길인 듯했습니다. 그 무엇에도 가르멜을 연

상시키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서서히 의식은 수면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비 손은 약손이다.” 어루만지시며 어릴 적부터 병약한 자식의 머리맡을 지키셨습니다. 지금은 주무시는 성 요셉 아버지께서 아버지 대신 머리맡을 지키고 계십니다.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안은 성모님과 머나먼 피난길을 걸으셨던 보호자요 성가정의 가장이신 분. 이국땅에서 목수 일로 가족을 부양하신 성 요셉 아버지는 고단한 하루를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곤히 주무십니다. 나의 근심·걱정도 요셉 아버지의 붓짐 아래 넣어 두고 주무시는 아버지 곁에서 의탁의 이불을 덮고 잠을 잡니다.

요셉 아버지 주무시는 창가에 나비처럼 만발한 야영화(夜影花)를 오늘은 누워서 바라봅니다. 영명인 브룬펠지어 자스민은 어제, 오늘, 내일(yesterday, today and tomorrow)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요. 꽃잎은 흰빛의 화심을 지닌 진보라에서 연보라, 하양으로 꽃잎이 변하기에,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은 한 나무에 삼색의 꽃잎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신과 인간의 합일을 상징하는 보랏빛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답니다. 짙은 보랏빛이 점점 하얗게 사워어가는 꽃잎은 완전한 사랑이란 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무언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어둔 밤이면 더욱 짙은 향기를 발하고 낙화하는 야영화의 흰 꽃잎이 '멸각'이라는 화두를 선물로 줍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먼저 핀 꽃이 열매를 맺고 추운 겨울을 견디며 새봄에 피어나는 꽃을 기다려 주는 야영화는 실화상봉수입니다. 뜰에 나서면 향기로 먼저 말을 거는 야영화처럼 하느님 사랑의 꽃이 가르멜 정원에 피고 지고 신부님, 수사님들이 피워내신 꽃무리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목자 없는 양떼인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고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 정성으로 스물다섯 개의 나이테를 지낸 푸른 나무로 자랐습니다. 자식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동영상과 노래, 축시와 축하 글에 담아 주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제대 앞에서 묵언의 축하를 보내 주신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한 해 두 해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며 온몸으로 새긴 사랑의 목리입니다.

성덕의 향기로 본을 보이시며 잘 자라라고 가르치고 길러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트랙에서 언제나 우리를 마중하시고 배웅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비록 하늘과 땅 사이, 바다 건너 수수만리 떨어져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엔 그렇게 늘 거기 계십니다. 아버지 고무신 하얗게 닳아 놓고 기다리듯 나의 영혼도 날마다 하얗게 닳았으면 좋겠습니다. 품 안의 재롱둥이처럼 아버지께 이웃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바다에서 불어 온 바람이 나뭇가지에 일렁입니다. * '이 자리 이곳' 에 핀 꽃들은 저마다의 향기로 화답합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나를 살게 하신 아버지의 자애로우신 사랑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만큼은 단잠을 꼭 주무시라고 꽃그늘이 사랑살랑 아버지 곁에서 부채바람 부쳐 드립니다. 반짝이는 아름다운 윤슬의 추억을 품어 안고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버

지 손을 잡고.

윤슬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햇빛처럼 비쳐 삶에서 반짝이는 풀비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속 모든 일들이 윤슬이 되어 제 입가에 미소짓게 만듭니다. 함께 했다는 추억이 제 삶에서 반짝이고, 그 윤슬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에 윤기를 더해주는 샘이지요.

축하드립니다.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이 재속 가르멜인으로서 사는 삶에서 윤슬처럼 반짝거리고, 앞에 펼쳐진 길에 어둠 속에 빛처럼 밝게 빛날 겁니다.

이제 또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함께'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미소를 날리면서 걸어갑시다.

(서봉교 어머니 마리아의 예로니모 신부님 축하 글 중에)

* '이 자리 이곳' / 전주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하상 바오로 신부님 축시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창립 25주년



오늘은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창립 25주년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신부님, 수사님 모든 가르멜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과 영상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회원의 글 *

좋기도 좋을시고~

임승빈(겸손의 요한)
남가주 성 요셉 공동체

부활 대축일 전날(4/3/2021),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떡집에 들러서 부활 대축일 미사 후에 나눠드릴 간단한 도시락을 주문하고, 아침으로 먹을 떡과 커피를 사서 수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벌써 계란을 사가지고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재속 회원분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다. 오랜만에 수도원에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특히나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 계란을 준비하는 일이 더더욱 신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으니, 저절로 흥이 나는 것도 지극히 당연 하리라...

커피와 떡으로 아침을 드시면서 가스버너에 불을 켜고 계란을 삶고, 그 동안 계란에 붙일 스티커를 자르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셨다. 백신을 1, 2차 다 맞았는지, 그 후유증은 없는지, 오늘/ 내일 미사에 몇 분이나 오실지, 배우자의 식습관 등등, 수도원 가라지 부엌 안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곳 미주 남가주 두 개의 재속회원 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부활 계란을 만들자고 의견을 내시었다고 하니, 참사회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 더더욱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남몰래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새삼 깨달으면서, 그분들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이돈희(보니파시오) 원장신부님께서도 점심식사는 수도원에 반찬이 많으니 밥만 해서 같이 하자고 하시면서 분주하게 들랑 날랑하셨다. 밥솥과 그릇, 반찬, 냄비들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뭔가 기분이 아주 좋으신 듯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셨다. 잠시 잠

을 내서 세 분의 자매님들은 수도원 뒷마당으로 가셔서 뭔가를 한 광주리 캐서 반찬을 똑딱 만드셨는데, 썸바귀라는 나물로 특 쏘는 특유의 향이 제법 일품이었고, 신부님께서 내오신 고등어조림, 김치, 청국장과 함께 푸짐한 점심이 어느 새 한 상차려져 모두들 정말 맛있게 드셨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꼈던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이 넘도록 행사를 못하다가, 이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수도원 미사도 재개되었고, 부활 성주간 전례도 수도원에서 하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더더욱 흐뭇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면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익숙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모두들 스트레스도 많지만, 이번 부활 계란을 준비하면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한 마음이 되어 공동체의 소중함과 감사함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가족임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다시 정상적인 대면 월모임/구역모임이 시작되면, 우리 재속회원들의 마음가짐은 팬데믹이 오기 전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나 또한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더더욱 감사하면서, 가르멜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봉사할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재속회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다짐하였다. 예쁘게 만들어진 부활 계란을 뒤로 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행복한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콧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 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 사는 것~~” ♥♥♥*

* 독자 후기 *

‘하느님의 시간¹⁾’을 읽고

곽경연(온유와 겸손의 미카엘라)/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창세기 3,8)

제가 읽었던 창세기에서 무심코 넘겼던 이 장면은 우리 곁에 늘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서에 표현된 이 부분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문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모습과 그들이 나무 뒤로 숨어버린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아서 글퍼집니다.

주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창세기 3,9-10). 이렇게 된 연유를 묻자, 사람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언행은 꼭 지금의 나 자신의 모습과 닮았음을 느끼곤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상의 순간에 그분께서 저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심을, 그 형언하기 힘든 사랑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할 수 있는 언어의 표현으로는 마치 ‘귀여운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 같은 달콤한 사랑의 눈길과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랑을 표현해 드리며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를 잇는 핑계도 이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바쁘오니, 이것이 현실이오니, 나중에 다시 뵙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유가 있다고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는 철부지 자식처럼 제 마음은 어딘가로 바쁘게 향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 자신에 지치고 피곤해져서 주님을 뵙고 싶다고 그 사랑 느끼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라면, 그분은 제 곁에 계시주십니다. 그 어느 곳에서든 조용한 나의 방이든, 고즈넉한 저녁 산책길에서도 ‘너 이제 왔느냐’ 하십니다. 저를 반겨주시며, 귀여운 작은 새들과 함께 옆에 걸으시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다니 어이된 일이옵니까?” (천주 자비의 글 14,10)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세상과 명예, 나 자신이라는 꿈과 무지 속에서 또한 시간과 함께 없어져 버릴 모든 것들의 허상 속에서 저는 깨어나서 잘 살고 싶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허상임을 알기를!! 진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깨달아 그 사랑이 제 삶의 바탕이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1) 가르멜회보 3월호: 묵상/ 윤원조(리드비나)

* 공동체 이야기 *

은 세상에 사랑을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여린 새싹이 어느새 푸른 잎사귀가 되어 녹음으로 물들어 가는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철쭉이 온 산을 울긋불긋 화사하게 물들이고 눈부신 장미와 튜립은 과연 계절의 여왕임을 느끼게 합니다.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는 나주 남평에 위치하는 광주 가르멜 수도원에서 월모임을 합니다.

도심을 지나 정겨운 시골길을 한참 달리다 보면 남평 드들강이 나오는데 그곳은 여름에 캠프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들강이 흐르는 다리를 지나면 한국 서남부 사제들의 산실인 가톨릭 대학교가 있고, 오솔길을 따라 20분쯤 걸어가면 파란 하늘 아래 영혼의 성인 듯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사계절은 찬미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연둣빛 새순의 이파리들이 빛나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 속 풀벌레와 매미 소리가 싱그럽고, 가을에는 형형색색 곱게 물든 낙엽과 잘 익어가는 밤과 감이 풍요롭습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에 덮인 수도원과 눈모자를 쓰고 계신 성모상이 세상의 더러움을 덮어주듯 마음을 정화해 줍니다.

하늘의 온갖 축복이 머물고 하느님의 영이 숨 쉬는 이곳은 세상의 소음마저 잊게 합니다.

수도원 정문을 들어서면 왼편 산에 한국 가르멜 수도회를 우리나라에 처음 창립하셨던 박병해 스테파노 신부님과 박태용 요한 신부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선종하시어 안장되실 때까지 함께 한 우리는 매년 위령성월에 묘역을 찾아 연도를 바칩니다.

묘역은 가르멜 정원에서 양육되어 주님

의 뜻을 이루시는 수사님들의 고향이고, 학생으로 오셔서 사제가 되시고 먼 훗날 영면하실 곳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요셉 성인상이 반겨주시고, 덩달아 초코와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맞아줍니다. 요셉 성인께 인사하고 산의 푸르른 향기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걷다 보면, 왼편 저 멀리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께서 서서 오라 손짓합니다. 한 달 만에 만나는 반가움에 꾸벅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는 초대회장인 김태곤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전북 장수에 있는 '만나의 집'이라는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셨을 때 시설을 후원하고 봉사하던 12명의 형제·자매들과 나눈 영적 갈망으로 태동하였습니다. 시설 관리와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태곤 프란치스코 초대회장님께서 영적 상담을 위해, 부산 가르멜 수녀원 원장 수녀님의 소개로 마산 수도원에 계시던 장석훈 베르나르도 신부님을 찾아가셨을 때, 가르멜 재속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매월 '만나의 집'으로 오시어 미사를 집전해 주셨고 미사와 강론을 통해 가르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태곤 프란치스코 초대회장님은 가르멜 영성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후원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인들을 모집한 후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당시 윤공희 대주교님의 창립미사로 1998년 12월에 회원 73명으로 재속회 첫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장소가 없어 가톨릭 평생교육원과, 북동성당, 살레시오수도원 성당

등으로 옮겨가며 월모임을 하였는데, 이후 2002년도에 나주시 남평에 가르멜 학생수도원이 설립되면서 광주 수도원에서 월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 수도원을 건립할 당시 수사님들은 직접 막일을 하시면서 인건비를 아꼈습니다. 회원들은 주방을 도와 새참을 마련하기도 하고 뒷산에 녹차나무를 심기도 하였지요. 학생수사님들은 수업을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오면서 학교에서 나누어준 물과 빵, 바나나 등 간식을 드시지 않고 슬그머니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수도원에 팔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부님, 수사님, 학생수사님들을 뵈면서 가르멜 공동체의 유대감이 깊어져 모두 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재속회 창립 20주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니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은총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속에 공동체에서 살아오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중 토막토막 기억나는 순간을 되돌려 수사님들과의 추억을 그려봅니다.

남자수도원 전통으로 매년 1월 초에는 수사님들의 연극이 열렸습니다. 수사님들의 연극은 연례행사로 늘 기대가 되었는데 배역에 맞게 분장한 수사님들의 진지하고도 어설픈 모습에 열띤 환호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었지요. 언젠가부터 이 행사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눈이 내리는 12월 김장철이 되면 모두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수사님들이 손수 키운 배추와 무를 뽑아 수사님들과 400~50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함지에 물을 받아 절인 배추를 릴레이로 씻습니다. 그렇게 김장하던 날은 여기저기서 함박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고 인생살이도 이야기하며 다

같이 둘러앉아 양념소를 넣고 담근 다음, 갓 담근 김장김치에 통깨를 뿌려 옹기종기 함께 먹는 점심은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수사님들과 무등산 등반을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수사님들이 뒤에서 한 발 한 발 격려해주시며 기다려주신 덕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격려에 힘입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정상인 서석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 성탄 대축일 전야, 성모의 밤, 가르멜 성모님과 성인들의 4대 축일엔 수도회 식구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행사를 갖습니다. 미사 후에는 수사님들께서 수도원 식당에 김밥, 어묵국, 다과 등으로 축하 나눔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따뜻한 어묵국은 국물만큼이나 따끈따끈한 정이 느껴지며 뜨거운 형제애를 느끼게 했습니다.

부활절엔 부활 계란을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팔찌 목주도 직접 만들어 선물해 주셨던 그 마음은 늘 무엇이랴도 해주시려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성모의 밤 때는 수사님들의 기타 반주에 맞춰 회원들의 편지를 읽었지요.

어느 수사님의 낭송이 생각납니다. 풋풋하고 순수한 낭송에 이렇게 배우는구나 싶은 마음과 함께 그날의 밤하늘과 산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새 소리까지 어우러져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새길 수 있었습니다. 성탄 밤 미사는 본당에서의 화려하고 북적거리는 분주함과 전혀 다른 소박함과 고요함,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는 전주 순교자의 모후 공동체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와 서로를 마주하고 친교를 나눕니다.

매년 5월이면 공동체 야유회로 봉쇄 수녀원 방문과 성지순례를 합니다. 혹은 수도원 뒷마당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

역별 장기자랑으로 춤, 노래, 가장행렬, 연극 등 수사님들과의 즐거운 친교가 이루어졌으며, 구역별로 수도원 수방 맨 위층에서 숙박피정을 통해 수도원 생활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의 대축일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운전 중 운전을 하면서 연신 주님을 부르며 비장한 마음으로 수도원을 가는데, 신부님, 수사님들께서 마을 어귀에서부터 비를 맞으며 기다려주셨습니다. 마을 뒷산의 계곡물이 흘러드는 탓에 패이고 부서진 도로 군데군데에 자갈을 깔고 위험할세라 곳곳을 지켜주시던 모습은 평생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는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가르멜 등반 역시 앞에서 끌어주고 동반해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삶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적대던 수도원과 수사님들의 그때 모습이 그리워지기에 성소자들을(현재 4분 학생수사님)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가족으로서 같은 카리스마를 나누는 신부님들과 수사님들, 학생수사님들이 주님의 종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회원들 간의 정이 많은 따뜻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회관을 마련하기 전까지 회원 집을 돌아가며 구역모임을 하고 가족들 경조사에 함께 하며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월모임 점심은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함께 먹습니다. 원래 전라도 음식은 알아주지 않는가! 저마다의 손맛으로 맛있고 푸짐한 반찬들을 모아보면 뷔페 못지않은

진수성찬에 보기만 해도 넉넉하게 배가 부릅니다.

어느 회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식사뿐 아니라 나눔도 뷔페 음식을 먹는 것 같다’ 라고 하셨지요. 이는 월모임 중 점심 후 뽐기를 하여 주제별 조별 나눔을 하는데, 나눔방으로 간 회원들의 나눔이 풍성하여 뷔페 식사와 같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여정 안에서 꽃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12명의 회원이 꽃의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꽃으로 다른 사람의 좋고도 아름다운 것을 한 가지씩 찾아주자는 뜻으로 12가지가 되었는데, 같은 꽃이지만 저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꽃, 바람, 구름, 초원 등 자연을 소재로 표현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감성이 놀라웠습니다. 작업을 이끌어주신 신부님께서서는 광주 재속회를 해당화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의지가 강하면서 열정적이며 가시가 있어 손으로 꺾을 수 없고, 그렇게 자신을 잘 방어하고 지키는 힘이 있으며 그 속에 순수함이 깃든 해당화꽃과 같은 재속회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듯 각자의 맡겨진 소명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속에서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살기 위해 허덕이다가, 상처투성이로 너덜너덜해진 영혼이 월모임 공동체 안에서 치유 받고 힘을 받아 충만해진 마음으로 또다시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침 이슬을 받아 행복하게 피는 꽃처럼 싱싱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화 데레사 자서전 P75)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버리고 공부하는 학생수사님들을 볼 때는 깊은 존경심이 생깁니다. 맑고

깨끗한 영혼들을 볼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 나 또한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신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믿음과 희망, 무엇보다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회헌 9장 3항)

무엇보다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아가 들어가면서 굳어가는 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가르멜 삶을 배우고 익히면서 더 깊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광주지역뿐 아니라, 목포, 보성, 담양, 남원 등 먼 곳에서 오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공동체 월모임을 못한지가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동체의 유대감과 일치를 위해 ‘그룹통화’를 통한 비대면으로 월모임을 하

고 있습니다. 단계별 양성도 ‘그룹콜’로 비대면 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르멜 회원으로 의무생활에 충실하며 회헌과 회칙을 꺾어없이 지키며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이 시간은,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에 더 간절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과 동시에 가르멜 회원으로 사는 오늘의 감사한 마음을 기리는 하나의 노력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선택 받고 부름 받음은 수난하신 주님을 위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Solo Dios Basta!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일 것입니다. 자애로우신 성모님의 품 안에서, 성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리라.’ *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첫 단순서약식 후 2000. 11. 19

2021년 7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25장 해설:

옴기, 묵상하기, 관상하기

성녀는 “옴는 것(rezar)”이 결코 낮은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겸손되어 잘 드린 구송기도는 기도하는 이를 관상으로 데려다주는 효과적인 지렛대이다.

성녀는 본 장의 제목에서부터 구송기도가 지닌 잠재성(“완전하게” 옴을 경우)을 분명한 여러 용어로 소개하고 있다. 25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구송기도를 완전히 바치는 영혼은 얻음이 많으며, 하느님은 그런 영혼을 어떻게 초자연적인 경지에까지 올려 주시는지에 대해 말함.”

“여러분 생각에 구송기도는 아무리 완전히 바쳐 보았자 얻는 것이 적다고 할까 봐, 나는 「주님의 기도」나 그 밖의 구송기도를 옴는 동안이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관상의 경지에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1. 옴기에서 관상을 향한 어렴풋한 행보

성녀는 『완덕의 길』에서 「주님의 기도」(27장)를 올바로 “옴는” 준비를 하는 기도 견습생들에게 짧지만 아주 감미롭고 단순한 그리고 강렬한 관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다. 즉 그들에게도 기도를 옴는 상태에서 관상으로 은밀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성녀는 「주님의 기도」에 깊이 닿을 내린 관상 기도가로서의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도 견습생 역시 이렇듯 관상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했다.

그에 따르면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일

이 일어난다. 입술이 계속해서 말마디를 흘뿌리는 동안,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을 보여 주신다.” 그리고 그분 친히 당신의 위대하심과 더불어 기도하는 이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이성을 정지시키고 딴 생각을 막고 말문까지 닫아 주시어 사람이 말을 하려 해도 못해서 간신히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1절). 하느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에 은밀히 기쁨을 내려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즐기는지도 모른 채 즐기게 된다.” 그리고 그를 사랑 안에서 불살라 버리신다. 즉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의지를 불살라 버리는” 사랑과 함께 그를 불살라 버리신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정확히 말해 성녀 자신의 관상기도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느님을 이해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 자신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모든 수단을 기도 안에 도입하고 이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다.

2. 사슬의 세 가지 고리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옴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정신 기도”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둘과 “완전한 관상”은 상당히 다르다.

-오직 말마디만을 옴는 기도란 있을 수 없다. 내면화되지 않은 “말마디”는 “질이 좋지 않은 음악을 듣는 것”(3절)과 같기 때문이다. 비록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이루고 있는 말마디일지라도 그렇다.

-무엇보다도 “정신 기도”는 “우리가

누구와 뭔가 감히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고 깨닫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생각, 가령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을 섬겨 드려야 할 우리건만 우리는 너무도 당신을 섬기는 일에 소홀했음을 깨닫는 것 역시 정신 기도이다” (3절).

-반면, ‘완전한 관상’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관상은 기도하는 이 안에서 하느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고생을 다 치른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보화” (상동)이다.

‘구송기도’ - ‘정신 기도’ - ‘관상’, 이 셋은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성녀는 여기서 읊는 기도, 즉 구송기도를 통해 뿌려진 씨앗으로부터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완전한 관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문제: 이것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 편에서 기도를 하고 하느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하느님의 체험 안으로 인도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신비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데레사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성녀는 기도를 통해 얻은 하느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에 대해 말했다. 무엇보다도 성녀는 이를 위해 신비 전수적인 책을 썼다. 그것이 바로 『자서전』이다. 성녀는 거기서 하느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주부적 관상(注賦的觀想)”의 선물을 주셨는지 이야기했다.

성녀는 독자 수녀들에게 조언했다. “저는 이제 죽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 책(즉 『자서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책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녀는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작품이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성녀는 『완덕의 길』의 독자들에게 늘 이 책(『자서전』)을 읽도록 권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관상의 경지에까지 도달케 하시어 행복을 체험한 몸으로 그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요점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도우시어 제법 그럴듯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4절)

4. 왜 이렇듯 주저하는 것일까?

성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녀들이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문을 “완벽하게 잘 읊는 것” 또는 정신 기도를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관상’이라고 하는 보다 강력한 형태 안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기도가 깊이 성숙하는 것을 지향했다.

그래서 성녀는 기도에 대한 교육을 두 시기로 나눴다. 1) 우선, 『완덕의 길』에서 특히 구송기도, 정신 기도, 거둬 기도에 대해 말했다. 2) “완전한 관상”(또는 신비적 관상)과 관련해서 성녀는 비껴가는 가운데 잠시 다루기만 했다. 관상에 대한 양성과 관련해서는 『자서전』에 위임했다.

『완덕의 길』과 『자서전』은 기도 교육을 위한 두 개의 조각을 이룬다. 따라서 작성된 시기에 따른 순서와는 반대로 두 작품을 읽어야 할 것이다.

성녀는 자신의 입장을 새로운 양성 지침서인 『영혼의 성』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결국 이 작품은 『완덕의 길』과 더불어 완벽한 두 개의 조각을 형성하게 된다.

데레사의 학교에 있어서 기도 수련은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 배우는 가운데 시작하며 『영혼의 성』의 4궁방, 5궁방, 6궁방, 7궁방에서 관상에 이르는 가운데 그 정점에 이른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발췌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엄마의 뜰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아버지는 그 당시 인기 있는 작가들의 시를 읽어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옛날 노래를 불러주며, 손수 조그만 장난감을 만들어 딸들에게 선물하는 등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했다. 이 가정엔 신앙심이 충만했다.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찾고, 가정에서의 기도, 잦은 영성체, 피정 등으로 늘 하느님을 공경하며 일상생활은 항상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

‘각자가 다 할 것이 있었다. 마리아 언니는 베틀에 올라갔고, 아버지는 실감개를 돌린다. 데레사와 글로리아는 바느질을 하고 어머니는 실을 잣는다. 나는 부엌을 말끔히 치운 후에 시침질을 뜯어내거나 단추를 꿰매는 등 바느질을 도와야 했다. 졸음을 피하기 위해 오빠는 손풍금을 켜고,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가끔 다른 부인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참으로 행복하시겠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스런 아이들을 주셨으니 말이에요.” (파티마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

단란하고 화목한 두 가정의 이야기, 알랑송의 소화 데레사와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세 목동 중 루치아의 가족 풍경이다. 남편과 동행했던 산티아고 순례를 프랑스 알랑송과 리지외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 성지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알랑송의 아기(소화 데레사)를 만나 하느님의 아기가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걸

었던 길, 다시 파티마의 아기(세 목동)를 만나 기도하며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동 루치아의 집은 우리네 사는 풍경과 비슷했다. 원목으로 만든 고가구와 마룻바닥, 단출한 부엌살림, 평범한 일상이었다. 방마다 작은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아기자기한 방, 아기 침대가 있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웅얼이가 들리는 것 같았다. 프랑스 알랑송 소화 데레사 생가에서 본 아기 방과 너무 닮았다. 작은방엔 루치아의 어머니가 했을 법한 베틀이 있었다. 루치아 수녀의 회고록에 등장했던 그 베틀이었다.

가르멜 수도복 차림의 루치아 수녀의 사진이 부엌 벽면을 가득 채웠다. 해맑은 얼굴에 웃음이 깃들었다. 그녀는 성 도로테아 수녀원에 입회했다가 가르멜 수녀원으로 옮겨 수도생활을 했다. 성모 발현 증인인 그녀를 가르멜회로 초대하느님의 뜻이 묵상되었다. 깊은 침묵과 기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의 삶. 그것이 목동 루치아의 사명이었던 것이다.

루치아의 집에서 조금 걸으면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 남매의 집이 나온다. 작지만 예쁜 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문간방이 있었다. 왼쪽은 프란치스코, 오른쪽은 히야친타의 방이었다. 침대만 달랑, 옷가지 몇 개뿐인데 모자람이 없어 보

였다. 빈 곳을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완벽주의가 생각났다. 길 위에서 맛본 단순함의 미덕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었다.

부엌에 장작 지핀 아궁이 흔적이 그대로였다. 네모난 식탁을 지나 잡동사니를 보관한 광으로 갔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 안에 있었다. 이런 저런 생활 집기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남매의 어린 시절 침실이 부모님의 방 옆에 있었다. 신앙의 기운이 가득한 집,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던 생활이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유년 시절이 있었고 부모 형제와 친척, 이웃이 있었다. 특별한 삶이 아닌 평범한 일상, 주어진 자리에서 성모님의 방문을 받게 된 것이다.

뭔가 꾸미지 않은 순박한 어린이였던 세 목동, 그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께 배운 묵주기도뿐이었다. 양을 몰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몸 기댈 바위만 있으면 셋이 묵주기도를 바쳤다. 힘없는 어린이였지만 하느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필요한 양육은 선택하신분의 몫일 테니까.

세 어린이가 나고 자란 가정이 성소의 못자리였고, 사랑을 키우는 작은 교회 즉, 일상에서 성인이 될 수 있는 훈련장이었다.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순교임을 안다. 가정이야말로 일상에서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세 목동의 생가에서 알랑송의 성인, 소화 데레사와 루이와 젤리 부부가 떠올랐다. 이들이 태어난 방, 자랄 때 썼던 침대와 생활용품들, 작은 십자가와 성모상, 그리고 어머니들이 썼던 옷 짜는 베틀과 뜨개질 용구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 목상

을 하며 창밖 하늘에 시선을 두던 중 깜짝 놀랐다. 성가정 성당 지붕 꼭대기에 성녀 소화 데레사 상이 있었다. 리지외에서부터 동행하시어 우리 부부를 도우신 성녀의 사랑이 사무치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귀국하기 하루 전, 세 목동의 무덤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싶었는데, 미사 중이었다. 되돌아 나오던 길에 야외 계단 고틀머리쯤에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 남매의 조각상이 있었다. 순수함의 상징, 하얀 색이었다. 둘은 검은색 묵주를 들고 있었다. 아니 묵주기도를 한창 바치는 중이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합류했다.

두 어린이는 성전이 아닌 일상의 한복판에서 있었다. 긴 순례 여정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리지외와 알랑송 생가에서 시작하여 코바다리아의 세 목동 생가에서 마무리한 시간, 리지외 어린이와 함께 기도하며, 파티마 세 어린이와 함께 기도를 마친 순례가 된 것이다.

크고 웅장한 파티마 대성당의 위력은 어린이들이 바친 작은 손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순박한 봉헌이 하느님의 큰 손 안에서 기적을 이뤄냈던 것이다. 소화 데레사가 껴안은 작은 십자가, 그리고 세 어린이의 겨자씨만 한 기도가 합하여 큰 십자가, 큰 성인이 된 것이다.

광장 맞은 편 언덕에서 있는 대형 십자가처럼 말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높고 깊은 영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이다운 순수성과 작은 존재, 그런 마음을 더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다. 철없을 나이 7세, 9세, 10세에 영혼 구원의 중재자로 선택된 세 어린이, 하지만 하느님께서 일찌감치 심어주신 사랑과 신뢰의 불꽃, 그것은 세 목동의 방에 있던 작은 십자가였다.

아울러 어릴 적부터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며 성모님을 친밀하게 만나 교감하도록 도운 엄마들의 신앙 교육이 밑거름이 되었을 터다. 소화 데레사 생가와 세 목동의 생가에서 느낀 엄마들의 음성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한 것을 보면... 화목한 가정, 엄마의 뜰에서 피어난 성소의 꽃, 소화 데레사와 목동 루치아는 가르멜의 신부로 초대받아, 신랑이신 주님과 한껏 사랑을 나누며, 우리 모두의 기도 엄마가 되어 주었다. 작은 성모님처럼...

'그날 오후 저는 성모님께 봉헌하는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 세상의 어머니를 잃은 제가, 친구들을 대표해서 천상의 어머니께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품에 뛰어들어 지켜 주시기를 청하는 어린아이처럼 성모 마리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저를 바치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작은 꽃을 내려다보시고, 다시 한번 방긋이 웃으셨습니다. 예전에 그 미소로 제가 아플 때 구해주신 분이 성모님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작은 꽃인 저의 꽃받침 안으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나리꽃" (아가2,1)인 예수님을 성모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

5월 성모성월, 햇살 가득 고인 엄마의 뜰에서 내 님이신 신랑과 함께 맘껏 사랑을 나눠 볼 테다. 강보에 싸여 엄마 품에 안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알콩달콩, 얼마나 행복할까? 가난한 신부의 불이 발레 피어나겠네.*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박정호 예수의 루시아
 - 선종일: 2021년 3월 28일(향년66세)
 -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 이관기 성 요셉의 가브리엘
 - 선종일: 2021년 4월 4일
 -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은경축

- *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날짜: 2021년 4월 12일
- 회원: 배은숙 마리아의 마틸다
조경자 예수의 세쿰다
이소연 성가정의 미카엘라

종신서약

- * 대구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날짜: 2021년 04월 11일
- 회원: 송숙희 겸손의 요안나 프란치스카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미사지향은 문자로 함(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6564/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홈페이지: <http://www.carmel.kr> / 유튜브: 가르멜수도회/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 관구

수도회 소식

가르멜 영성 특강

-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시간: 강연 13:40/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 강사 및 주제

날짜	5월 14일
강사	전주원 하상 바오로 수사 (가르멜 수도회 수련장)
주제	예수님의 이야기, 데레사의 이야기
날짜	6월 11일
강사	김영문 브루노 수사 (가르멜 광주 수도원 원장)
주제	소화 데레사 성녀의 기도

-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서울 청년피정	
장소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강당
시간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대상	20-40세 청년 (기혼/ 미혼 무관, 신자/ 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장소	가르멜 광주 수도원
시간	6월 5-6일
대상	고등학생 이상(남자)

- * 문의: 010-2140-7414

임승재 골롬바노 수사님 안식년

임승재 골롬바노 수사님이 4월 13일, 안식년을 보내시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수사님께서서는 안식년 동안 스페인 아빌라에서 가르멜 영성을 더 깊이 있게 배우실 것입니다. 수사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히 잘 지내시다 돌아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피정

일 시: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1시 ~ 5시
장 소: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참가비: 1만원 (강의록 배부)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참석자 성명 및 세례명: 문자 메시지)

5월	일시	5월 15일(토) 오후 1시~ 5시
	주제	소화 데레사와 아기 예수
	강사	조운용 엘리야 신부

- * 강의, 성체현시와 기도(고해성사), 미사.

성녀 소화 데레사 신심미사

서울	매월 둘째 월요일 오전 10시30분(기도)/ 11시(미사)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인천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30분(기도)/ 11시(미사)
	가르멜 인천 수도원
대구	매월 첫째 화요일 오전 10시30분(기도)/ 11시(미사)
	대구 재속 가르멜 회관

참가신청 및 문의: 010-6305-5088



백거현(성모성심의 읍) 수사 촬영



물과 피

태초에 아버지의 영이 감돌던 심연처럼
여인의 몸속에서 잠든 시간들,
어머니는 당신 물과 피를 쏟으며 나를 낳고,
나 또한 물과 피를 쏟으며 잠시 멀어졌지만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 눈시린 꽃분홍 봄날이여!

-Jean J de C-